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⑨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0월 26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 1부 천원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여래에게는 자기 국토라는게 없다. 중생들이 사는 곳이 곧 불국토다. (유마경)

법회안내

조계사 732-2115
정기법회 화 오후 7시
토 오후 4시
발원법회 첫째 토 오후 4시
참회법회 마지막 토 오후 4시

봉은사 511-6070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 매주 일
3천배 철야정진법회 매월 22일

대각사 539-2635
금강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등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진관사 359-8410
신중기도 매월 초하루(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강남포교원 539-2635
정기법회 매주 수 오전 11시
매주 일 오전 11시

대구 보현사(053)254-6966
신장기도 매월 1일
입요법회 매주 일
지장재일 매월 18일
관음재일 매월 24일

부산 범어사 (051)508-312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 · 고등부 · 청소년 법회 매주 일

광주 원각사 (062)223-3168
월요법회 매주 월
지장기도 16~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기초교리 매주 목 오후 7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 7시

제주 관음사 (064)55-68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 6시
연화법회 격주 화 오후 2시
관음불교대학교 매주 금 오후2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알리기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내일의 불교 우리가 맡겠다"

청년불자들 21세기준비 발걸음 힘차
대불청 전불련등 세미나 · 백서 마련

"21C는 우리에게 맡겨라"

청년불자들이 21C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침체를 벗고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청년단체들이 다가오는 21C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맞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21C안에 몰입등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될 정세, 내년 지자제 선거등 연이어 있을 선거, 그리고 종단 개혁이라는 교계 내외적 분위기가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뿐아니라 팔짱만 끼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불교는 결코 21C를 리드해 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청년불자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를 21C 희망이자 길잡이로 만들고 말겠다는 청년불자들의 야심찬 의욕도 발걸음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21C를 준비하는 기획팀을 가동시키며 장기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배영진, 이하 '대불청')이다. 일단 기초단계에 돌입했다는 대불청 기획팀은 자신들의 현황을 바른 시일내에 자료화 해 그것을 기반으로 년도 및 기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단계로는 여론을 조광적으로 수렴하고 현시점에서는 「신도법」제정과 내년 지자제 선거를 대비 불교계 준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1C를 지향하는 전국청년회 발전 전략」이라는 백서를 발간한 바 있을 정도로 21C 준비에 역점을 둔 진각종 대한밀교청년회 (회장 허협, 이하 '대밀청')는 백서에서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01년까지 대밀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하에 장기발전안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또한 진각종 회당학회는 2001년까지 8년간 매년 10편정도의 회당학 관련 논문을 발간해 종단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내놓고 있다.

미래시대의 주역을 자부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장학, 이하 '대불련') 역시 교화사업 활성화등 2천년대를 맞을 장기플랜을 세워놓고 있다. 오는 97년까지를 1차 5개년, 2002년까지를 2차 5개년으로 2007년까지를 3차 5개년으로 잡아 1차를 기반다지는 기간으로, 2차를 약진의 시기로, 그리고 3차년도까지 대불련을 우리나라 젊은불자들의 명실상부한 최대 전국적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혁신안을 밝히고 있다. 장기혁신안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교화단 사업과 대불련 회관 건립, 동문회 활성화이다.

18개 단체가 연합된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 이하'전불련') 역시 21C안에 봉일을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 사업으로 △남북상호군축운동 △단기쓰기 생활화 △반민족 행위자 철저 색출 처벌 운동 등 민족의 정기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세미나 개최등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불자들의 움직임에 우려의 눈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단부가 전국 조직을 지향하는 단체들이지만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상층부 몇명의 머리 맞댐속에서만 오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회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인식의 공유를 위한 교육과 구체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는 일을 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원확보를 위한 효율적 방안 수립도 중요 관건이다. 재원마련과 더불어 인력 수급도 심각한 문제. 한층 다양해지고 전문화될 21C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인재양성이 공염불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청년불자들을 필리리정도로 취급하는 종단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대불청 하영태 사무총장은 "21C를 우리 불자들의 시대로 맞겠다는 사부대중의 부철한 확신과 준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야말로 21C를 진정 불교의 시대로 만드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경숙 기자〉

재가연합 지방본부 설립
11월말 이천에 수련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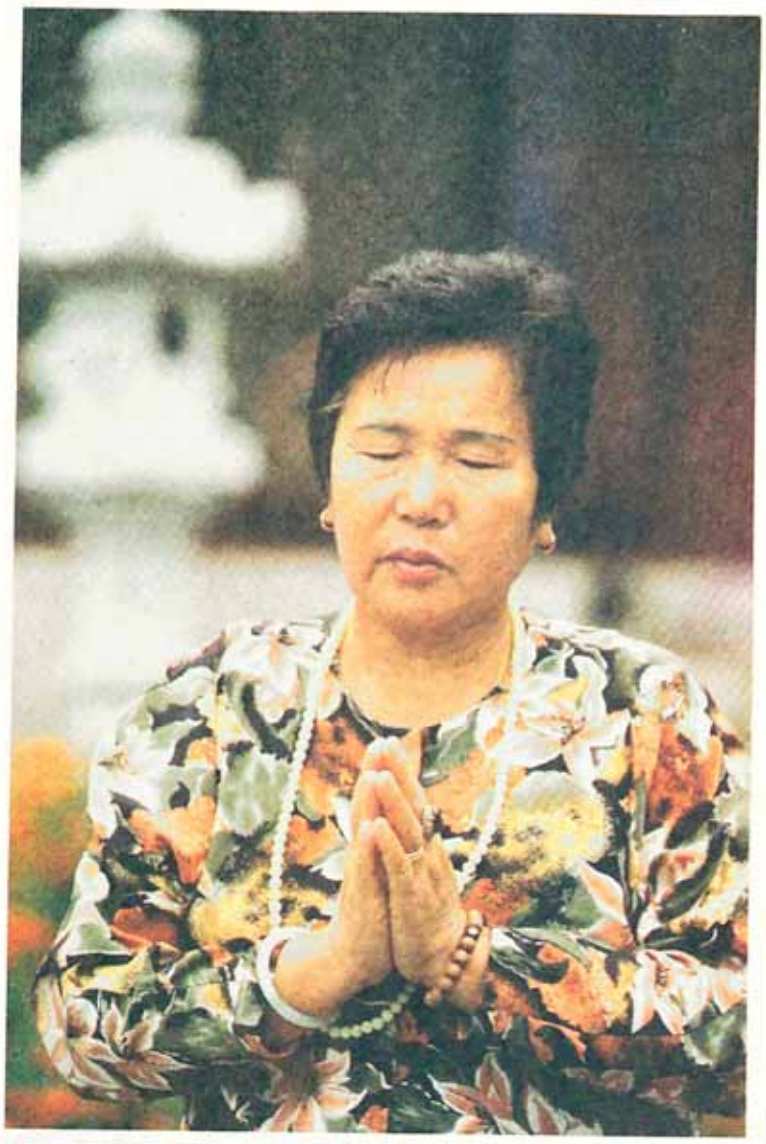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회장 안동일)은 전국 조직 활성화, 홍보사업 등 올 하반기 사업을 확정했다.

재가연합은 조직활성화로 11월안에 대구 전주 광주지역에 각 본부설립을 하기로 하는 한편 12월안으로 고문단 및 지도위원단을 선정, 추대키로 했다. 한편 홍보를 위해 재가연합은 11월 1일자로 회보 「재가불자신문」을 창간하며 11월말에는 경기도 이천에 2백명 수용 규모의 3층 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새 중앙회장 선출
대불청, 이달 30일

대한불교 청년회 대의원회의(의장 양승찬)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3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8대 중앙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중앙회장후보로 진인철 전 조계사 청년회장과 이상번 전 대구지구회장이 출마 했으며 합동정견발표를 갖는등 막바지 유세를 펼치고 있다.



금메달 딴 어머니 불심 "부처님 우리 영조가 일본에서 금메달을 따 한국사람의 힘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 지난 8일 히로시마에서 세계최고의 건각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향해 달리는 시간, 어머니 이만자 여사가 삼척 영은사에서 아들의 1등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삼척=박차원 기자)

목어

조계종에 선거 바람이 일고 있다.

"누가 뭘 것 같습니까"

"얼마쯤 쓸까"

개혁회의의 바톤을 넘겨받을 조계종 총무원장을 점치는 말들이 심심찮게 오가고 있다. 무심히 말하고 무감각하게 들어 넘기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고 속스런 말인가.

성직자와 선거, 수행자와 선거는 그다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종단의 수장을 뽑을 때면 으레 종단 주변에서는 물론 언론에서까지 선거열기를 부추긴다.

바람없는 절집 선거

수행집단과 세속이 달라야 함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수행종단의 대표를 뽑는데는 민주적 선거도 좋지만,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덕망있는 성직자를 모실 수 있으면 더욱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제도화 된 이상 소리없이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종교집단의 선거다울 것으로 본다. 세속에서 조차 새로운 선거풍토를 다지고 있는데, 하물며 개혁의 봇을 이어야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요란스럽게 가열 된다면 이는 불성사나운 풍경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명리나 존경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탐하지 말라'고 거듭 거듭 당부하셨다. 또 '스님들의 비슷은 탁비슷만도 못하다'는 속말도 있다.

당연히 그러하리라 믿지만 후보들은 이타심으로 나서야 하고, 3백20명의 선거인단 역시 이타심으로 대표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조계종의 선거를 마치 세속적 선거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승가는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금주의 현대불교

창간 정사 참석자 명단 ……2 · 3면
산문밖의 선 - 여조 김용현 ……5면
창간기념 랭카스터·정병조교수 대담 …7면
지상법석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 ……8 · 9면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10면
신세대 주부불자 "바쁘다 바빠" ……11면
해외통신 · 부다가야 대각사운영권문제 ……14면
방생이 달라지고 있다 ……45면


목탁기념관 오대산 월정사 (月精寺) 국성 · 삼화사 (聖輪寺) 서흥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기침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金同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에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풍산 한식동기와로 시공한 대표적 건물 목탁기념관, 오대산 월정사, 구여 화엄사 연기암, 하동 칠불사, 부산 관기침 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대승사, 부산 복천사, 삼주 관적사, 삼주 극락정사, 국성 삼룡사, 서흥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제천 강천사, 대구 관입사, 대학 현불사, 구미 해운사, 나주 흥서학기, 장성 한국도로공사, 여리 통일타업, 대구 대구이중, 서울 회계사

열 린 마 당

무너진 인륜, 부처님 법으로 다시 세우자

임 연 태 기자

최근 우리사회는 말로 형언 못할 반인륜적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존파 사건이후 택시강도, 보복살인등이 연일 세상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온갖 범죄가 판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무엇이 이 사회를 이토록 황량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들 삶의 현장은 언제까지 범죄의 그늘에 덮혀 있어야 하는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하고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범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때다.

우리 사회가 범죄의 그늘에 뒤덮힌 것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산업화의 일로에서 이룩된 경제 성장은 그만큼 정신문화를 황폐화 시켜 왔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신문화의 황폐화는 인륜과 가치관의 부재로 이어지고 거기서 업기적 사건들이 독버섯 처럼 자생된 것이라는게 사회학자들의 지적이다.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문화 빈곤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는 그 토양이 척박하기만하다. 온갖 매스미디어들은 폭력과 파괴로 얼룩진 영상, 인쇄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문화에 대한 여과 없는 수용도 위험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이런 내부적 요건들을 우려하는 소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때마다 우려와 경악의 탄성만 연발하고 다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관습화 되고 있다.

「범죄 불감증」.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한 순간적인 경악만 있을뿐 근원적인 치유책은 없는 메마른 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우리사회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정치 권력층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수차례 거론돼 왔다. 반공, 조국근대화, 정의사회구현, 보통 사람의 시대,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정권들의 모토들이 얼마나 국민 생활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그 주된 내용이다.

정치 권력이 내세운 일련의 모토들은 집권층의 정통성 강조와 보여주기식 정치 구호로 흘러서는 안될 중요한 이념들이다. 그 지도 이념들이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들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뿌리내린 인간상실의 생채기들은 오늘의 생명경시 풍조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지적이고 보면 총체적인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당위성도 확보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정신없이 달려 왔다. 그 질주 속에서 우리는 얻은 것만큼 잃었다. 물질적 풍요를 얻었고 정신적 풍요는 잃었다는 것이다.

정신문화의 빈곤이 가져 온 가치관의 몰락과 도덕성의 상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교육의 문제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온 것이다. 심성교육의 중요성도 수차례 강조 돼 왔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장은 아직 혼돈 속에 있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와 학부모들의 정도를 넘은 교육열이 청소년들을 방향의 길로 내몰고 있다.

학교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한주소도 냉정히 점검돼야 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하나의 맥을 이루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 풍토는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범죄들은 부처님이 그토록 간절히 일러주신 탐·진·치의 삼독을 극복하지 못한데서 발생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제시한 바른 삶의 길로 나가야 한다.

불살생을 강조한 오계와, 육바라밀의 실천, 그리고 팔정도의 실천을 위해 불교계는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도 필요하다. 특히 오계의 실천은 불자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며 사회적으로도 오계 실천이 확산되어야 할 인간 삶의 기본덕목인 것이다.

생명경시 풍조는 불교가 제시하는 동체대비 정신의 부재를 극복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불교계에 생명공양운동이나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우리 사회의 극악한 범죄들은 인간방생과 같은 교계의 건전한 활동 영역이 넓어져 감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현대불교」창간 리셉션에서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는 김광삼 발행인,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함마은선원장, 김종필 민자당 대표, 이민섭 문체부장관(왼쪽부터).

「현대불교」창간 행사 대성황

정·재·언론·문화계 인사대거 참여

2천5백여 불자, 힘찬 첫걸음 축하

「현대불교」 창간기념 행사가 지난 14일 오후 6시 하야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교계, 정계, 재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인사등 2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이경재 공보처차관등 정부 요인과 김종필 민자당 대표, 김상현 민주당고문, 이종찬 새한국당대표, 곽정출 민자당의원등 현직의원과 채문식 전 국회의장, 고흥문 전국회부의장,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등 정계 원로, 중진인사, 유종렬 효성중공업사장, 최시호 (주)선경부사장, 김재봉 율산그룹회장, 한신력 동부산업사장등 재계 인사들이 참가해 「현대불교」의 창간을 축하했다. 또 지하 조계종 총무원부원장,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등 각종단 대표와 최호진 매일경제신문고문, 박용정 한국경제신문사장,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채규희 에너지경제신문사장등 언론계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문화예술계에서는 여초 김응현선생과 김종규 삼성출판사 사장 등이 함께 했다.

신문개요 설명과 인사말, 축사, 여흥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현대불교」 명예회장 대행스님은 "이제 한국불교는 세계로 퍼져나갈 때"라고 강조하고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부원장 지하스님과 이기영박사는 축사를 통해 "현대불교의 창간을 불교계의 또다른 힘을 축적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여흥시간은 한마음선원 합창단과 이미배, 김태곤씨의 노래공양으로 장식됐다.

참석해 주신 분

교계

△정회수 화엄종종회의장 △법등스님 조계종개혁회의법사분과위원장 △지원스님 삼보사주지 △권오성 예비역군승단 회장 △자우스님 동국학원재단사무국장 △입정준 국방부군종실장 △홍파스님 관음종총무원장 △김형균 불지사사장 △박동기 WFB한국지회장 △제원스님 청경사주지 △김재일 통산반야회장 △지하스님 조계종총무원부원장 △김은세 광제원대표 △청화스님 실천승가회회장 △각현스님 연꽃마을이사장 △박형진 종단협사무국장 △원행스님 자광사주지 △일정 진각종총무부장 △성호 진각종재무부장 △회정 진각종문화국장 △정휴스님 조계종 개혁회의의원 △여연스님 조계종개혁회의사무처장 △영담스님 석왕사주지 △권오현 불교진흥원사무국장 △윤덕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도원스님 천태종총무부장 △윤제스님 전 태고종총무원장 △정우스님 목동청소년회관관장 △혜강 비구니정혜도량총무부장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송남 불자가수회회장 △원기스님 한마음선단식원원장 △이루스님 청주관음사주지 △혜거스님 금강선원장

정·관계

△현기화 중국대사관 공사 △심지영 중국대사관 △이종찬 새한국당대표 △김종규 전 새한국당대표 △김종필 민자당대표 △곽정출 민자당의원 △김상현 민주당고문 △서석재 민자당당무위원 △정대철 민주당고문 △이민섭 문체부장관 △이경재 공보처차관 △부병진 민자당대변인 △입덕규 전 의원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 △이중재 민자당고문 △염길정 전 의원 △김의재 서울시교육본부장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인재 민자당의원 △채문식 전 국회의장 △고흥문 전 국회부의장

3면에 계속

「생명 경시」 누구 책임인가

사 설

우리는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존속살인과 상해, 어린이 유괴살인, 화풀이 살인, 보복성 살인 및 폭행 등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된 이래 우리 민족의 원형적 정서인 인간을 신성시하는 정서는 인간을 부처와 동일한 존재로 존중하는 사회 기풍을 형성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의 존재도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적 가르침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지 무생물체에 이르는 광범위한 자애심을 우리 민족의 정서에 함양시켜 왔다.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을 부처와 동일한 존재로 존중했다. 이러한 사상은 근대에 이르러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한다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민족 전래의 원형적 정서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죽이고, 버리고, 폭행하더라도 죄악감이 없을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이유와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몇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해방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된 서구 모방의 교육형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구의 절대주의 사고방식이나 개체적 인간관을 홍포하기 위해 매진한 것이 현대 한국교육의 「공로」라면 인성교육이나 더불어 삶의 미덕을 앙양시키지 못한 「공로」도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종교인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학교라는 제도권의 교육을 벗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종교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기능이나 외형적 교세확장에만 주력했다. 특히 70년대의 고도성장과 함께 서구 자본주의의 선전기관 내지 배금주의사상 전파의 전초병 역할을 해 왔다. 종교가 지닌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세속적 영합에 몰두한 것이다. 셋째는 정치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한국의 정치인들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인간이 존중받고 살 수 있도록 도덕정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근대정치사를 회고해 볼 때 배금주의 사상이나 살인, 폭력 등 인명경시 풍조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무시되거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목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민족은 여타 민족이 선망하는 국가를 만들었다. 이제 마음놓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제언한다. 이것은 상대적 가치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총체적인 노력에서 가능성이 나타나리라 본다. 특히 종교인이나 교육자, 정치인들은 바람직한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서서 민족의 장래를 희망차게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베푸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

세상을 경악케 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이토록 잔악해졌는지, 한국사회의 현주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돼 있다.

단군신화를 보더라도 하늘님의 아들인 환웅이 동물인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시조를 낳고 있다. 이는 인간의 성품에는 신성(神性)과 수성(獸性)이 공존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신성의 함양과 수성의 억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수양이며 타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교육이다.

인간의 전세와 미래를 믿는 다면 현세의 물연이나 육욕은 마땅히 억제되고 그를 수양을 통해 교양인 즉, 인자들에 의한 선한 사회가 되겠지만, 오늘날 합리주의가 인간을 지배하고 이념보다는 과학문명이 몸보이는 사회에서는 자연히 신앙심 조차도 현세와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물적 풍요에 의한 행복 즉 금전의 획득과 유지로 보상됨으로 관명되기 때문에 또 출생과 사망이 과학적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증명됨으로써 육체를 운용하는 정신은 육체적 복합기능 운동에 의하여 시작했다가 정지함으로써 끝난다는 믿음이 광배하고 말았다. 즉 정신은 육체의 부수물로 여김으로써 전통적인 충효사상이나 경노사상같은 인간가치관이 쓰레기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인간을 목적 자체로 보고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봉사시킬 수도 있다는 도덕율은 사라지고 인간을 수단으로 보고 타인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치풍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종교도 전세관이나 내세관을 버리고 합리주의에 의거하여 현세만을 강조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한 외형적 윤리 표출과 현실적 성공만을 신의 축복으로 강조함으로써 종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치도 그 지도자나 집권층이 도덕성을 상실함으로써 정상배들이 되어 삼척동자도 불신하게 되고 경제도 인스턴트적 충족에 맞추기 위한 금전 추구에 문화도 눈앞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즉흥적인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마당에 결국 인간 자체를 자기를 위한 여러가지 환경적 존재물 이상으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타인의 생명을 앗아 버리고 그 시신은 쓰레기처럼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재가자 즉, 가정에 머물러 있는 불자에게 열가지 선업을 강조하신 바 있다. 몸으로 저지르는 살인·간음·도둑질을 못하게 하고, 입으로 저지르는 거짓말·악담·두가지 말·희롱하는 말을 못하게 하고, 탐욕과 시기·질투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을 멀리하라고 하셨다.

이를 따르는 동시에 재물을 베풀고(재시) 진리를 베풀고(법시) 평화를 베푼다면(무외시) 이 사회는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점 수

(경북대 교수, 국민윤리교육학)

현 대 만 평

박 구 원



세상이 왜 이렇게…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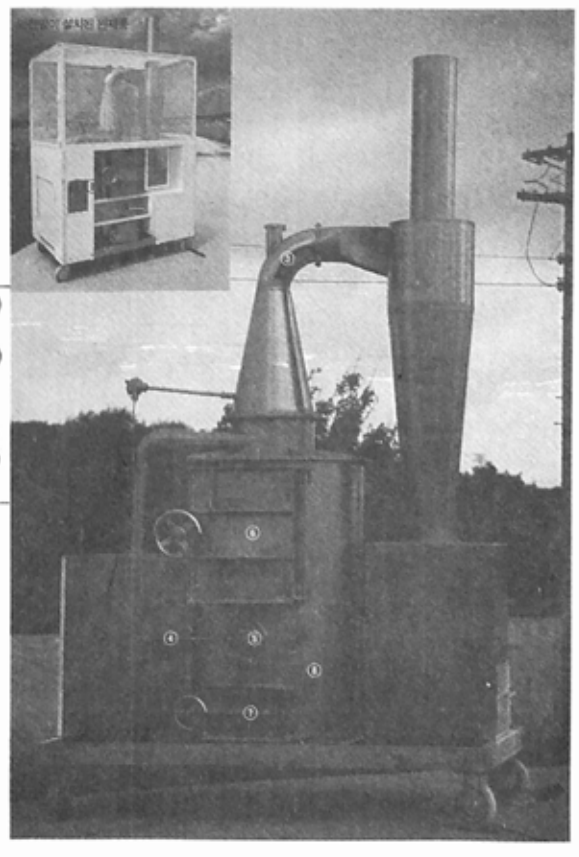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붙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 - 8644, 의장특허출원 94 - 8470, 8471, 8472



① 스위치(버튼식)
② 공기조절 레버
③ 안전핀(가스 방출구)
④ 냉각파이프
⑤ 냉각물 혼 입구
⑥ 투입구(소각물)
⑦ 배출구(잔여재)
⑧ 소각로 나사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 - 1
전화 : (0344) 64 - 7236, 62 - 3488
팩스 : (0344) 62 - 7012

신행수첩

성철 큰스님 추모주간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이 열반에 드신지 벌써 1년. 해인사 백련암에는 1주기를 맞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있다.

24일 추모법회에 앞서 백련문도회는 17일 부터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진행하고있다. 백련암 고심원에서 열리는 이법회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란 주제로 매일 수백명의 불자들이 찾아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일주일간 2천여명의 불자들이 기도동참할 것으로 보여 추모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추모법회는 24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관련기사 15면)

홍련암 산고끝에 낙성

요즈음 서울 삼각산 홍련암 주지 진광스님과 신도들은 26일 법당 낙성식을 앞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사찰 창건 이후 처음으로 제모습을 갖춘 법당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홍련암의 창건은 지난 '68년이었다. 작은 암자로 출발했으나 법당 대지가 국유지여서 그동안 20여차례나 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5년전 정부로 부터 사찰대지를 매입하고 이번에 법당을 중창했다. 법당 낙성식은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02-912-0048)

진신사리 3과 봉안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평 백운사(주지 법일)에 봉안된다. 이번에 봉안되는 사리는 89년 5월 서경보스님이 태국 왁땐져 왕립사원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부처님 적멸후 8개국으로 나누어져 불자들의 신앙모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부터 중국에서 부처님진신사리를 이운해 왔다. 특히 자장율사가 모셔온 진신사리는 통도사 봉정암 법흥사 상원사 정암사등에 봉안되었다. 국내 5대 기도처로 알려진 이사찰들은 적멸보궁으로 법당에는 불상이 없다. 부처님의 진신이기에 굳이 불상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28일 오전 8시 청량리 진주예식장앞에서 하나관광버스 출발. 0338-73-0900)



개관6주년 맞는 목동청소년회관.

푸짐한 개관 6주년 행사

청소년포교의 요람지 서울 목동청소년회관이 26일로 개관 6주년을 맞아 오전 11시 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목동회관은 기념식에서 모범직원 표창식과 다과회등을 거행할 예정이다.

6년동안 목동지역 문화중심지로 자리메김해온 목동회관은 개관 기념식에 앞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있어 주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청소년 우수영화 무료감상회(19-20일), 회원작품 30여점이 전시된 회원작품전시회(18-11월3일), 인기가수 초청공연,'93년 화제 영화를 상영하는 목청제(22일)등이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다.

목동회관은 기념식에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정과 양친구 추천 모범청소년 30명에게 총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02-646-0181)

5m 용두관음상 조성

대구 비슬산 법왕사(주지 실상)에 높이 5m(47자) 석조 용두관음보살상이 세워진다. 28일 오전 10시에 봉안법회가 열리는 법왕사 용두관음보살상은 전북 함등에서 출토된 화강암으로 조성됐다.

한민족에게 관음신앙은 불교만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종교를 떠나 어려운일이 있을때면 누구나 관세음보살을 찾기 때문이다. 오랜세월 동안 관세음보살은 이땅의 중생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포근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해 왔다.

(053-766-3747)

〈2면서 계속〉

△구천서 전 의원△최영철 전 부총리 △정덕용 문체부종무실장 △이용부 문체부종무관

학계

△심익섭 동국대교수 △김재휘 박사 △하수경 전주대교수 △강신표 한양대교수△이각범 서울대교수 △권기종 동국대불교대학장 △이종욱 동국대교수 △송석구 동국대부총장 △이종찬 동국대교수 △최순택 원광대교수 △이근호 이대교수 △전재성 한국불교대교수△박경훈 전 역경부장 △연기영 동국대교수 △임정대 연세대교수 △권두환 서울대교수 △동국대 법산스님 △황덕호 승실전문대교수 △오형근 동국대불교대학원장 △목정배 동국대교수 △김형 원광대교수 △민병천 동국대총장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송재운 동국대교수 △승호수 개천대학장 △이태교 한성대교수 △권인범 단국대교수 △고준환 경기대교수 △정재영 성균관대교수 △박업 고려대교수 △이형호 육사교수 △이철희 육사교수 △황규봉 육사교 △염준근 동국대교수

재계

△백용기 한국영상이사장 △한갑진 한진영화사대표 △신현석 한국종합전기부사장 △송두빈 한라중공업 전무 △안인학 아세아종금고문 △최계월 한국남방개발회장 △김준배 공세당대표 △조병준 한보관광대표 △마의웅 해태부사장 △최시호 선경부사장 △박찬효 KTB컨설팅대표△김재봉 율산회장 △김기탁 삼화실업회장 △함영조 민영물산사장 △박용욱 이생산업사장 △김종규 삼성출판사사장 △한신혜 동부산업사장 △이지홍 상록회중앙회장 △이기웁 안국화재상담역 △안우희 전 전기연구소장 △오경의 한국마사회회장 △유종열 효성중공업사장 △서우담 교림출판사대표

언론계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강한필 불교방송전무 △최종율 경향신문사장 △육종석 경향신문전무 △손광식 문화일보사장 △박노응 한국경제신문주필 △유인근 한국경제신문감사 △이억순 전 세계일보주필 △공종원 조선일보논설위원 △신종수 중앙일보부국장 △백인호 매일경제TV대표 △박용정 한국경제신문사장 △최호진 매일경제신문고문 △김영하 조선일보논설위원 △이태형 불교텔리비전제작본부장 △홍사성 불교텔리비전제작국장 △안길모 KTV 전문위원 △혜총스님 대한불교신문사장 △채규희 에너지경제신문사장 △배병휴 매일경제신문주필 △정정순 해동불교신문사장 △박상갑 법사불교신문사무총장 △입희경 해동불교신문회장 △불교신문사장효림스님 △김재범 그린스카우트사무국장 △조영호 불교신문업무국장

법조계

△장현태 변호사 △안동일 변호사 △박준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전창열 변호사

문화예술계

△김서봉 전미협이사장 △정관수 △김응현 △정찬주 △이은구 △임중빈 △황충상 △김익홍 동국불교미술인회장

회환 · 화분

△동국대학교석림동문회회장 이혜총 △광세당인쇄 김준배 △월간굴렁쇠어린이대표 김형균 △기아자동차(두)사장 한승준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묘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전경련회장 최종현 △서석재의원 △동국대학교 승가동문회회장/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유원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 △불교TV(주)대표이사 김태응 △효성중공업(주)대표이사 유종열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 △동국대학교총장 민병현 △목동청소년회관관장 이공우 △한마음선원 심조희 △군승단장 강남석법사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최지광 △대한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박탄성 △태양금속공업 부회장 한애삼 △한국경제신문사사장 박용정 △대한불교관음종사무총장 이홍파 △아성건설(주)대표이사 문원영 △한국마사회 회장 오경의 △현대그룹문화실 △새한국당대표최고위원 이종찬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민주당대표최고위원 이기택 △국회의원 김범명 △민자당불교신도회장 국회의원 곽정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탄성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TV사장 장대환 △삼보주지 윤지원 △한진건설 △불교신문사 임직원일동 △한국불교기자협회 △경향신문사사장 최종률 △삼화그룹 회장 김기탁 △월간불광, 불광출판부 △동국학원 녹원스님 △만자당 사무총장 문정수 △흥익정책연구소이사장 김숙향 △통성고제34회동기회 △국회의원 김범명 △쌍방울사장 최승우 △금호그룹회장 박성용 △불교출판협의회 회장 원택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 △불교방송사장 김태호 △호산상사대표이사 강구성 △대우그룹회장 김우중 △의학박사 황용섭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 김대중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박현성 △동국불교미범인회 △황용섭박사 △(주)오령 대표이사 권정신 △(주)한진건설 조남호 △법보신문사 △매트시스템대표 윤종주

휘호

△여초 김응현선생 △인덕방장 △법륜종 총무원장 일화스님 △일붕 서경보종정

선물

△대한불교신문사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중앙승가대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한국불교신문사

축전

△국회의원 장영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이성재 △국회교육위원장 이영권 △한진건설(주) 박강지 △국회의원 김진영 △목아불교박물관 박찬수 △광주 김두원 △국회의원 이윤수 △국회의원 허화평 △정해창 △불교텔러비전 강정기 부국장 △국회의원 유돈우 △매일경제신문사 한병걸 상무이사 △문화체육부차관 김도현 △동국대교수 이도업 △중앙승가대학 신문사 △배재대학교 총장 이성근 △국회내무위원장 김기배 △국회의원 임사빈 △흥국사 일면스님 △국회의원 김원웅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해복 △국회의원 현경대 △민자당총재비서실장 국회의원 강재섭 △한국불교신문사 조인석 △원불교교정원장 김인철 △삼화불교대학 혜인스님 △해동불교신문사 사장 정정순 △진주산업대학교 박물관장 김기원 △감로회 임원일동 △시사저널 신중식 △(주)나라기획 회장 조해형 △동방불교대학 총성복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장 서윤길 △국회의원 박석무 △관화작가 김영만 △민자당 원내총무 이한동 △국회의원 이철 △동국대교수 윤호진 △제주 이선행 △국회의원 구천서 △청와대 교문사회수석비서관 김정남 △기상청 최희승 △우리사상정책연구소 소장 박희택 △KBS문화사업단 사업이사 손소진 △문혜관스님 △성남불교신도회장 임선교 △국회의원 김호일 △심원회 회장 조정봉 △한국자유기고가협회 회장 김재완 △원광대학교 교학부총장 류병덕 △매일경제신문사 배병휴 논설주간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장 구본장 △국회의원 이석현 △민주당 최고위원 유준상 △국회의원 박희태 △체신 과학기술위원장 장경우 △이정구 △민주당 목포시지구당 위원장 김홍일 △천도교 중앙총부 홍장화 △박수길 △조남도 △이현기 △백신종 △일본 원로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금일봉

△조계종 총무원 △ 화엄승가 장학재단 △한마음선원 강릉신도회 △(주)KTB컨설팅

〈무순〉

※지난 14일 행사에서 본사는 하객 여러분을 위해 1천5백개의 선물을 준비했으나 부족하여 모든 분께 다 드리지 못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수행일기



김 태 호

<불교방송 사장>

세월이 어느새 60고개에 접어 들었다.

부처님께 회향하는 마음으로 불교방송에서 일한지도 한돌이 다가오고 있다.

지겹도록 무더웠던 지난여름, 방송사직원들과 함께 통도사 연수에 참가 했었다.

4박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자신은 물론 함께 참가하게된 딸에게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의 주위는 광란에 가까운 극단적 향락주의가 관을 치고 인륜과 도덕이 허무해져 이대로는 안된다는 뜻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X세대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사고들. '야타족'이라는 듣도 보지도못한 말들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회속에서 자라고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막내 딸에게 통도사 연수에 함께 가기를 권했다.

뜻밖의 아버지 제의였지만 몇일만에 함께 가기를 약속했다.

서울에서 연수생들과 함께 고속버스로 출발, 5일후 집에 돌아올때까지 정해진 규율에 따라 움직이고 동참해 주었다.



해오면서 불연을 맺은 불자다.

60년대말 공직생활을 하면서 불국사를 비롯한 전국 유명사찰복원, 주변정화, 유락시설의 집단화추진 사업에 정부쪽일을 맡아 한것도 전생의 인연이라고 여긴다.

12~13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정각회 회원으로, 그리고 회장으로 일해 온것도 같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내무장관 재직시의 이야기이다.

중앙승가대학을 증개축하여 4년제 대학으로 만드는것이 불교계의 큰숙원이었다.

그 숙원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한 대통령 시행령이었다.

이것을 개정해야 숙원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법령이 세번째 보류되는 순간, 어쩌면 계기가 되는 순간, 나는 사회를 보는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자격이 아니라 정각회회장인 불자의 한사람으로 교계의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고 간청하여 통과 시킨 일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국무회의 운영규칙에 위반되는 일

"회향하는 자세로 향기 남겼으면"

합장마저 가르친바 없는 딸자식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밤11시 잠자리에 드는 박박한 일정속에서 아침, 저녁예불, 백팔배, 참선, 스님들의 심오한 법문을 열심히 듣고 배우며, 예불문, 참회문,부모은중경, 반야심경도 따라 염불을 했다.

수료하기 전날 일주문에서 적멸보궁까지의 '삼보일배'의 힘들고 장엄한 행사에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가슴이 터질것만 같은 감격과 환희속에 어지할 바를 몰라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함 없이 눈물을 쏟고 말았다.

마지막날 수계받고 서울로 돌아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밤새워 연수과정을 떨어 놓아 다음해에는 친구들도 모두 연수에 지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향기나는 도량에서 무명을 밝히려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생활을 잠시나마 지켜보면서 신선한 충격과 함께 앞으로의 생활에 크나큰 지표를 얻었으리라 믿어진다.

이사람은 함머님, 어머님따라 가까운 절에 가고 장인, 장모권유로 힘닿는데까지 불사를 이었으나 모두가 너그럽게 넘겨주어 큰 죄가 없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 깊이 소신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불교방송에 일하게 된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회'라는 소리를 들었다. 가끔을 뵙는 주위사람들의 말에 인연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 회향한 것이라고도 해왔다.

날마다 대서특필하는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대형사건들을 걸가지만의 다스림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할때가 아닌가?

그 원인 치유에 불교가(모든 종교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주장하고 싶다. 우리불교가 '마음만 깨치면 된다는 식의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을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외치고 싶다.

지난 30년간 국가일, 사회일 보면서 걸가지에 매달려 살지 않았나 돌이켜보면서 방송을 통한 인륜과 도덕재건에 힘쓸 생각이다.

남은 생활이 마음먹은대로 되어 영원한 향기를 남기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생활속의불교 ②

나라고 믿어온 그 나를 잊을 때
있는 그대로의 존재인 참나가 드러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가.

학력증명서나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불교를 배운다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불법을 배울 수가 있다.
누구든지 불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불법을 공부하는 데는 학력 증명서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은 전달하는 것이고, 전달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견성성불', '직지인심', '불립문자'라는
말 밖의 말이 가능한 것이다.

불법은
어렵고 높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훌륭한 것이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현대불교신문사

믿음으로 모십니다

· 중질지
· 도서용지
· 백상지
· 신문용지
· 아트지
· 스노우 화이트지
· 기타 특수지

우영상사 (지류도매) 서울 특별시 중구 수표동 56 - 1 강남 빌딩 802호
전화: 266 - 9328 / 272 - 9873

교 차 로



동남아순회 포교



숭산 스님(화계사 조실)은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스리랑카 등 동남아국가를 차례로 순방중에 있다. 스님은 순방을 마치고 오는 11월 7일 귀국 예정이다.

백양사 주지에 임명



지선스님은 지난 10일자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에 임명됐다. 스님은 64년 상현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서 득도한 후 67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종정사서실장 관음사 주지등을 역임하고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천불전 불사준비



경암스님(세계불교신문사 사장·위싱턴 보림사 주지)은 보림사 천불전 불사 준비계로 지난 15일 귀국했다.

경암스님은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개혁회의 홍보실장 부임



혜담스님(BBS 자비의 전화 진행자)이 지난 18일자로 조계종 개혁회의 홍보실장으로 부임했다.

2차대전 희생자 천도재 참석



각성스님(약사포교원 주지)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사이판 관음사에서 열린 2차대전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희생자 위령대제 및 천도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조계종 전국포교사단이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천도재와 전적지순례를 함께 했다.

'세종문화상' 수상



민병천총장(동국대)이 '94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방, 안보분야에 발전을 기하고 관계학문 진흥에 공적이 있는 국민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공적을 치하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방송경영인 세미나 참석

김태호사장(불교방송)은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열린 '94년도 방송경영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제도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미래방송 기술환경의 변화 그에따른 대처방안'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파라다이스에서 열렸다.

청소년 1급 지도자 연수



선진규법사(봉화산 청소년 수련원장)는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개발원이 주관하는 1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 취득 연수를 받고 있다. 이 연수는 보라매공원내 청소년회관에서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제17대 군종감 취임



백영식법사(공군본부 군종과장)는 지난 1일자로 공군 군승 최초로 대령 진급이 확정 됨에 따라 다음달 공군 제17대 군종감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백영식법사는 1950년 부산출생으로 68년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73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한 이후 지난 78년 공군대위로 임관 군법사로 환약해왔다.

'명찰, 그곳에서~' 강연



최완수씨(간송미술관 연구실장)는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청년회가 마련한 특강에 참여했다 최씨는 '명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일·중 불교교류회의 참가



권기종교수(동국대불교대학장)는 10월 22,23일 이틀간 일본 경도시 불교대학 사조선타에서 열리는 제5회 일중 불교학술교류회의에 참가.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 논문을 발표했다.

경도 기념대회 참석



김용운교수(한양대, 불교방송 시청자위원)는 동국대 일본학연구소와 일본의 이호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재일교포 위치에 관한 심포지움'과 일본 경도 1천2백년 기념대회에 참석키 위해 지난 14일 출국했다.

고조선 강좌 열어



김종규씨(삼성출판사 회장)는 단국대 윤내현교수(사학과)를 초청, '한국고대사-민족의 뿌리 고조선'강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삼성출판박물관(02-679-4597)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기획·출판사 개업

최연씨(한국재가불자연합 사무처장)는 지난 14일, 출판 인쇄 기획사인 '선재마을'을 열고 그 개업식을 가졌다. (02)263-0928~9

수미산 여행사 사장 취임



이성호씨가 최근 (주)수미산 여행사 대표이사로 취임 지난 21일 여행사 사무실에서 취임식 및 창립 5주년 기념축하연을 가졌다. (02)720-3241~7



농협불교회 평화점안식 불기2538년 9월 24일(토)

◇ 농협불자회 회원들의 서원은 회사에서 가장 내실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탐 방

농협 불자회

불심으로 '신토불이' 지킨다

불심으로 신토불이 정신을 강화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개방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단체가 농협불자회(회장 조완영)이다.

지난 2월 26일 창립된 농협불자회는 창립 7개월만에 2백여 회원으로 늘어났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농협중앙회내 12층 회의실을 이용 정기법회를 열어 불심을 키우는데, 회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끔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법사를 초청해 특별법회를 열기도 한다.

또한 성지순례도 실시해 유명 사찰을 찾아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함께 참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고 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도 빠트릴수 없는 농협불자회의 신행활동이다.

지난달에는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그동안 회원들이 오래 기다려 왔던 법당의 점화점안식을 봉행했다.

신행과 더불어 포교에도 힘쓰는 농협불자회는 회원들의 신행담, 생활과 밀접한 법문, 쉬운 불교교리 그리고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회보 '불이문'을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는 물론 농협 곳곳에 비치, 농협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 수 있게 해 포교에도 앞장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의 가장 큰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 경남, 부산권의 농협불교회, 충청권의 농협불교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한 농협불자들을 하나로 조직해 전국 농협불자연합회를 만드는 것이다.

조완영회장은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하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여 가장 모범이 되는 신행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근 기자〉

내일을 여는 불자

불교정보연구소 이 정 소장



◇한국 불교정보 전산화에 이정표를 세운 이정 소장

"끊임없는 기술변화에 대한 추적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불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전산화해 방대한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교방송 조사자료부장겸 불교정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정 부장은 자료를 수집, 전산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방송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불교자료를 가공하고 불교정보 유통망을 구성해 불교정보를 첨단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장본인이다.

미래정보사회에 불교가 순조롭게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정보개발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 부장은 자료관리에 적합한 '비정형 데이타베이스'전공학도답게 〈불교 역사 인물〉〈불교계 인명록〉〈사찰〉 데이타 베이스 등을 완성,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다.

이제 막 첫단추를 끼웠으나 바로 이것이 전산화에 관한 한 여타 종교보다도 불교가 가장 앞서 간다는 데 대한 이부장의 자부심이자 21세기를 준비하는 포교의 뿌리이기도 한 것이다.

동국대 역경원, 해인사 대장경 연구소와 협력해 한글대장경 전산화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이 부장은 시대에 맞는 자료해석과 그에 따른 쉬운 자료이용의 방법을 찾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불교교리가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어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질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와 컴퓨터와의 사이를 좁혀 그 틈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권생 과제인만큼 물러 서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해 성취한다는 것이 좌우명입니다."

'지치기 쉬운 일상생활에서도 불교는 항상 자신의 중심속에 있다'고 이 부장은 모든 일에 임할 때 항상 긍정적인 부자야 말로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정보전산화로써 불국정토건설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 싶다는 강한 신념을 내보이고 있다.

이정부장은 동국대 불교대학과 정보산업대학원을 거쳐 대덕연구단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10년간 연구원으로 재임했으며 〈진리의 문〉〈사찰사전〉〈한국불교 인명사전〉외 컴퓨터 관련서적 다수를 펴내기도 한, 불교계 몇 안되는 독보적 전문 일꾼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불교정보 전산화의 기수···첨단포교 길열어

"기쁨넘치는 세상 만들겠어요"

무료공부방·사랑의 빵보내기·장학회등 운영

서울 휘경동 소재 한국사회문화연구소(소장 고해우·이하 사문연)의 오후는 늘상 어린 개구쟁이들로 시끌벅적하다. 오후 3시반부터 국민학교 학년마다 시간별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 열리는 수업은 굳이 학교과정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한문·생활영어뿐 아니라 예절·인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법, 잊혀져간 우리의 놀이문화를 재현해 보는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년째 무료로 운영되는 연구소의 수업은 아이들의 학습열기만큼이나 성과가 높다. 발표력이 높아 인근 국민학교의 학생회장은 모두가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차지다.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의 수석도 이들이 도맡아 한다. 때문에 연구소내에 마련된 40여석의 좌석은 언제나 만원이다.

이렇듯 사문연은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회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료어린이 공부방뿐 아니라 사랑나눔 월영회,나누는 기쁨 장학회, 사랑의 빵보내기 운동이 모두 이곳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문연은 지난 88년 복지·문화·환경등의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해우 소장이 세웠다. 89년말,마산 월영사에 잠시 머물던 고 소장은 월영사불사를 추진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들을 만났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고 또한 이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모임이 되더군요"

당시 19명의 젊은 불자들이 주축되어 사랑나눔 월영회를 탄생시켰다. 회비와 바자회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무의탁노인과 환자 교도소 군병원 고아원등을 찾아 다니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월영회의 자비실천은 전국으로 퍼져 이제는 4백여 회원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월영회 활동을 하면서 고 소장은 시설아동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설아동들을 찾는 이들이 줄어 간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가슴아파했다. 월영회를 중심으로 방 떡 과일 생활용품을 소외된 이웃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사랑의 빵보내기 운동의 시발이다. 연구소내에 본부를 마련하고 간식과 생활용품,의약품등을 기탁받았다. 연구소로 모여진 성금과 물품은 경주 대자원,진주 성애원,강릉 자비원,마산 관해사,부산 천마재활원등 불교관련 복지시설단체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있다.

또한 대자원 식구들의 고등학교 이후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기위해 나누는 기쁨 장학회를 만들었다. 운문승가대학 28회 스님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장학회는 불우청소년 후원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에 주력, 금년말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소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업은 '우리가 나누는 자비와 사랑... 그것은 따뜻한 세상만들기의 시작'이란 구호아래 진행됩니다. 이는 내가 가진 것을 버린다기 보다는 나누어 사용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모든 운동이 단지 기쁨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고해우 소장의 주장처럼 사문연은 보살행이 숨쉬는 심장이 되어 강하게 맥박치고 있다. 월영회 964-3965 〈이준엽 기자〉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사랑나눔 월영회



◇무료어린이 공부방 수업에 앞서 교사회의가 열리고 있다. 중앙이 고해우 소장



참 축 간
현대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ch 32

주춧돌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불국토에 계신 고승 대덕 큰스님과 불제자 여러분,
거룩하고도 성스러운 불사에 동참하시기를 호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정업의 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는 공덕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포교와 전법의 혜명을 부처님께서 주신 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의 불교텔레비전 방송은 간절한 원력을 뿌리 삼아 차질한 준비 과정을 거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 정규방송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서 법열이 솟구치고, 저절로 신심이 나지 않습니까? 불제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심과 기도를 모아 마음의 수미산, 보시의 바다를 이룰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대작 불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2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2천만 불자이면 누구라도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불국토를 간망하는 불제자님들의 뜨거운 결의가 식지 않는 한, 영상포교의 길은 바로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전국 2천만 불제자 여러분, 불교텔레비전의 주춧돌이 돼주십시오.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벽돌 한장이 되어 주십시오.
티끌 하나도 사라짐이 없는 세상, 이와 같은 공덕과 인연이 어찌 성불로 이어지는 돌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마음 안에 극락의 마당을 하나 이루시고,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주식 청약안내

■ 청 약 기 간 : 1994년 9월 10일 ~ 10월 31일
■ 청약서 교부처 : 전국 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 청 약 한 도 : 1인 10주(5만원) 이상 2만주(1억원) 이하
■ 청 약 요 령 : ● 교부받은 청약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 날인하신 후 교부받은 사찰, 불교단체에 직접 전달해 주시거나,
● 아래 주소로 우송(등기우편)해 주십시오.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불교텔레비전 경영관리국 전화 : (02)3270-3471~3479
■ 청약금납입요령 : ●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의 지로청구예시 [지로번호 : 7614677]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납입하실 때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약금은 사찰이나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에서 직접 받지는 않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금송천기빌딩
전화 3270-3300 팩스 3270-3498



십화 · 이기선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라"

악한 짓 하지말고 착한 일 실천하는 가르침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❶

일곱 부처님의 가르침

〈七佛通誡〉

조용한 새벽이다. 나는 향불을 사루어 놓고 합장 예경한다. 소담한 원력을 세워 기도한다. 앞으로 엄마동안 현대불교지면에 쓸 「오늘의 불교」의 내용이 알뜰하고 유익하고 또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염원한다. 이 글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불교가 생활속에 솟구치는 삶의 향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간결하면서도 쉽게 쓰려고 한다. 문재가 아닌 필자의 문필이 어떤때는 독자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고, 믿고있는 불교의 교설을 가슴에 담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자상한 애정을 갖고 읽어 주기 바라고 또한 가차없는 질책을 하여 주기 바란다. 글은 혼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면 무용한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불교인이 오늘에 꼭 있어야 할 생각들, 실천되어야 할 덕목, 자랑하여야 할 불교인들의 삶의 향기를 부드럽게 써 내려가려고 한다.

불교인들의 향기

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한다.〈불명경〉에는 만분의 부처님의 이름이 있다. 어찌 이렇게도 많은 부처님이 계실까,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명호가 하나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고 적기되었다. 이름도 무량이다. 이름이 무량이면 그 부처님이 가시는 공능도 다양무한일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명경〉의 부처님을 모두 거명할 수 없다. 다만 일곱부처님의 사상과 덕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칠불이라고 하는데 과거불과 현재불이다.

과거육불은 비바시부처님에서부터 연등부처님까지 여섯부처님이고, 현재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 모든 부처님을 칠불이라고 하는데 이들 부처님이공통된 가르침을 갖고 있다.즉 "모든 악한 것은 짓지 말고, 온갖 착한것은 받들어 실천하라. 스스로 마음을 밝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이다.

이것이 칠불통계(七佛通誡)라하여 불교인이 가장 쉽게 받아드릴수 있는 교설이다. 착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악행은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일체의 악한 행위를 제지하는 도덕적 금지 조항이다. 선·악,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악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수 있는가 하면 착한 쪽으로 향진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수도 있다.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시각각으로 다잡지 못하면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굴러 갈 수 있다. 마음은 모든 환경에 물들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에 다잡아 세우는 정진력이 쇠미하게 되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된다.

부처님들께서 악을 짓지 말라.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고 한것은 윤리적 의지를 받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악은 무조건 빠짐없이 만들지 말라고 제지 금지함에 비하여 착한것은 받들어 행해야 한다는 봉행(奉行)이라고 한것은 깊은 의미가 내재된것이다. 악은 받들 대상에서 그 자격이 없고 선은 받들어야 할 절대적 명제인 것이다. 우리는 착함을 봉행하는 의식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명제는 제지함과 봉행 할 것을 교시한 것으로 받아 들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스스로의 마음은 밝히라」고 한것은 차원이 다른 의미다. 본래 마음은 밝아 있었던 청정성, 여래성이다. 이 청정성이 혼탁하게 되고 여래성이 중생으로 뒤바뀌어 졌다면 인간의 오류요 오점이 아닐수 없다. 마음의 해맑음은 허공과 같다. 비어 있는 허공은 청아하고 거룩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은 공활함. 하늘빛과 같은 청정함을 닮으려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

너·나 구별없는 평등심

이처럼 비어 있음은 향그럽고 따뜻함이다.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정기의「自淨其意」의 의미일 것이다. 삼의 먹구름이 마음에 끼이면 번뇌가 되고 이 번뇌가 선·악을 만들어 낸다. 선이나 악이 생기지 않는 마음, 마치 허공에 구름이 일지 않으면 창창한 하늘이듯이 우리 인간의 근원은 여래성이고 광명성이다.부처님 일곱분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청정성을 되찾아 내라고 우리들에게 계명한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통 사람은 악은 나쁘고 선은 기리고 찬탄할 것이라 하지만 여실한 진리는 그와같은 분별성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목면은 천진난만한 것이어야 하고 가고 오고 하는 시간성이나 크고 작은 공간성이 아닌 절로 절로 되어진 절로 있어야 할 마음자리이다. 이 마음의 빛살이 환하게 너·나의 구별없이 광등하여야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합내는 마음인 것이다.

서도삼매 넘나드는 화해의 필봉

글씨도 인간의 참모습 담겨야 아름다와

임연태 기자

'하의 다리를 떼어다 오리에 붙이면 그것은 학인가, 오리인가.'

한국 서예계의 거장 여초 김응현선생은 이 이치만 알면 예술과 선의 궁극적 경지를 다 아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의 몸은 가버우니 가늘고 긴 다리가 자연스럽고 오리의 몸은 무거우니 짧은 다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초 선생은 이 단순한 논리가 갖는 의미를 통해 세상의 진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여초 선생에게 있어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반세기를 걸쳐 써온 글씨, 그러나 끝이 없는 서법(書法)의 길이 곧 수행의 길이다. 마음이 들뜨는 날은 글씨의 획들도 들뜨고 우울한 날에 쓴 글씨 역시 우울한 것. 그 무상한 변화의 길이 곧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설명이다.

그 진리의 처음과 끝은 다시 「화해」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화해 한다는 것은 곧 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바탕입니다. 선·악이든 장·단이든 또 넓고 좁음이든 대립적 개념들이 화해를 함으로 이뤄내는 자연스러움은 인간에게 지극한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고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움, 이것은 여초선생이 글씨를 쓰며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자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모든 사물과 논리들이 갖는 모순성을 화해시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초선생은 꾸준한 탐구의식과 굳은 수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을 한다고 밖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탐구해 나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초 선생의 이같은 입장은 글씨를 쓰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초선생은 어떤 글을 쓰건 첫획에서 마지막획까지 서로의 화해가 이뤄졌을때 진정한 서법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고 강조한다. 다시말해서 어떤 글씨에도 인간의 참모습과 학문의 깊이, 종교의 가르침등 인간에서 시작되고 인간에서 종결되는 제반 가치들이 화해의 모습으로 어우러진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천성」의 반영이기도 하다는게 여초 선생의 설명이다.

— 화해가 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 어떤 마음이든 가져서는 안되지. 마음을 놓아야해.

여초선생에게 있어 글씨를 쓰는 것은 화해와 자연스러움을 향해 가는 끝없는 수행같이다. 그 길에서 선생은 달마를 만나기도 하고 공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서 만나는 달마와 공자는 옛날의 달마 공자가 아닌 오늘의 여초선생이 된다. 그 허물없는 교감이 없는한 한자의 글씨도 글씨답게 써 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굳이 달마나 공자뿐만 아니라 저자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책에서 읽는 모든 글들과도 허물없는 교감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여초선생의 지론이다.

> *"어떤일을 하건 그 일의 극에 다다르면 그곳이 곧 선의 묘한 이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길은 학문만 있어도 안되고 논리와 예술적 재간만 있어도 안되는 길입니다. 모든것이 두루 통하는 넓고 큰길이 되어야 합니다."*



◇ 선서일여의 경지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꿰뚫는 여초 김응현선생

사실 여초 선생의 넓고 깊은 독서량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넓은 독서량에서 그의 글씨가 나오고 허물없이 교감하는 역대 조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화해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일게다.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의 극에 다다르면 그곳이 곧 선의 묘한 이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은 학문만 있어도 안되고 논리와 예술적 재간만 있어도 안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두루 통하는 넓고 큰 그길로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닦아 가는 것은 꾸준한 수양을 통해 이뤄진다고 여초선생은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초 선생에게 있어 서법이건 불교이건 모두 스스로의 화해와 자연스러움을 터득하는 도구일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것이다. 해능이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남쪽으로 떠나는 밤, 스승에게 "이제 제가 노를 저어 건너겠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여초 선생은 스스로 서법의 세계를 개척하고 그 속에서 서도삼매의 청정미묘한 맛을 즐기는 것이다.

서도삼매의 깊은 정적속에서 써진 여초선생의 글씨들은 이미 한국 서단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도가들에게도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올해 5월과 9월에 중국 서도의 최고봉인 계공(啓功)선생과 교류전을 가짐으로 그 진가를 확고히 다졌다.

여초선생은 현재 종로구 경운동에 자리한 동방연서회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서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설악산의 한적한 자락에는 영시암(永矢庵)이란 암자도 짓고 있는데 이 암자에서 선생은 선서일여(禪書一如)의 공부선 필풍을 보여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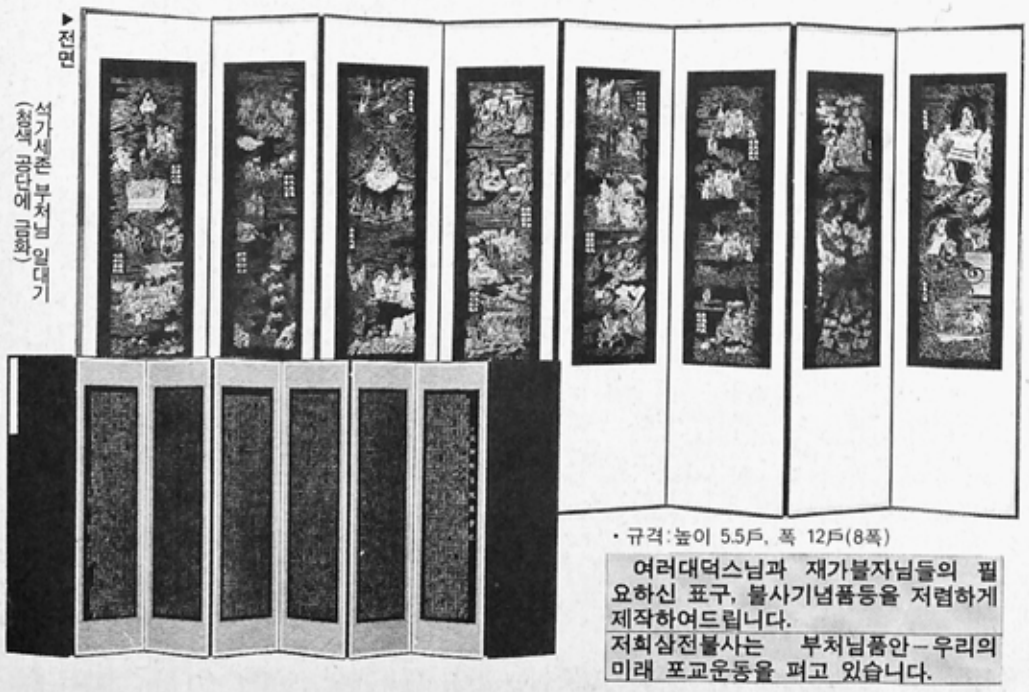
— 선생님께서는 무엇이 선(禪)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의 다리는 학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오리의 다리는 오리에게 붙어 있어야지 않겠나.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 규격:높이 5.5尺, 폭 12尺(8폭)

여러대덕스님과 재가불자님들의 필요하신 표구, 불사기념품등을 저렴하게 제작하여드립니다.
저희삼전불사는 부처님품안—우리의 미래 포교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병풍—팔상록, 금강경

• 작품해설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金畫로 전면에 조성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金畫로 사경하여 원력을 담았습니다.

• 전면:팔상록 • 후면:금강경

1. 도솔래의상—석존께서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람강생상—룸비니 꽃동산 탄생하시다.
3. 사문유관상—생노병사의 허무를 관찰하시다.
4. 유성출가상—한밤에 성을 넘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시다.
5. 설산수도상—설산의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각을 이루시다.
6. 수하항마상—마왕파순의 도전을 받고 굴복을 받으시다.
7. 녹원전법상—5비구의 귀의와 녹야원 설법하시다.
8. 쌍림열반상—열반에 드시다.

포교기념품증정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대중포교를 펴고자 본성품을 신청하시는 분께 백자 반아달마 도자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백자 반아 달마도자기〉

특별보급가격:W390,000(현금및 은행신용카드)
장기분할가격 W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8회

황금 관음친견도

대비성자이신 관세음보살친견도를 가정마다 모시는 불자가됩시다.
힘들고 어려울때 길을 일러 주십니다.



재가불자 성도거사님이 직접 그린 금화입니다.
• 족자규격: 1520×520 (㎜)
• 포교가격: W198,000원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 田 佛 事 포교원
■ 문의처 : (02)439—6128~9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지난 7, 8일 송광사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제7회 학술회의

불교 학술행사 풍성

불경전산화 · 종조문제 등 조명

10월들어 각종 학술대회가 전국에서 열려 불교학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한달 동안 열린 10여건의 학술대회는 각기 독특한 주제와 내용으로 교계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불전협의회

지난 1.2일 합천 해인사에서는 해인사 장경연구소(소장 종립)주관으로 세계전자 불전협의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전세계 불교자료의 전산화 공동작업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결성된 전자불전협의회에는 10개 회원국 30여 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불경전산화작업 추진에 관한 현황보고와 프로그램 교환을 위한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네차례에 걸쳐 전산입력코드의 통일화를 위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서울대 심재룡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업무회의에서는 차기회장으로 버틀리대 랭카스터교수를 유임시키고, 2년후 96년에 열릴 3차회의를 대만 불공산 까오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성철스님 1주 행사

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는 성철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탁련불교문화재단 주최로 '퇴옹 성철 대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교수가 '선문정로(禪門正路)의 수증론'을, 연세대 국학연구원 신규탁교수가 '본지풍광(本地風光)과 임제종풍'을 발표했다.

보조태고 사상세미나

같은날 7일부터 8일까지 송광사에서는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보조지눌과 태고보우의 선사상'을 주제로 한 제7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날 29일 종헌 개정안의 공포때까지 논란이 되어온 조계종 중흥조 논쟁과 연관돼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 2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방향은 보조와 태고를 조계종 중흥조로 함께 인정하되, 종통을 태고보우에 두고 종지를 보조지눌에 두자는 절충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장사상 학술회의

이어 13일 통도사 원통전에서는 '자장사상의 문화사적 고찰'이란 주제로 영축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성파)의 제5회 정례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화엄의 초조고(初祖考)' (이도업 동국대 경주정각원장), '자장정율과 사분율' (남동신 외대강사), '자장의 사상적 기반' (박태원 동의대강사)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 1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의 진단과 전망'이란 주제로 한국불교문화원(대표 홍무흡) 개원 1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종교개혁세미나

18일에는 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종교계 개혁을 위한 세미나'가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주최로 열렸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악한 범죄현상과 관련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윤이흠교수가 '종교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한국종교협의회 이재석회장이 '실천없는 믿음도 믿음인가'를, 성균관 최근덕관장이 '종교인의 의식개혁'을 각각 발표했다.

기타

이밖에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이종후)는 10월22일 오후 2시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한국인의 심성과 종교'라는 주제로 제16회 종교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당학회는 10월29일 대전에서 대주제 없이 회당의 사상을 중심으로 학술발표회를 준비중에 있다.

「자장」은 조영 예술가

통도사 등 사찰건축에 "빼어난 안목"

홍광표 교수 주장

지난 13일 통도사 원통전에서 열린 영축불교문화연구원 제5회 정례학술회의에서 홍광표 교수(동국대 조경학)가 발표한 '자장의 조영관(造營觀) 연구'라는 논문이 독특한 관점으로 자장을 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신라 자장율사에 대한 관심이 주로 그의 사상과 철학, 국가관 등 비교적 한정된 분야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홍교수의 논문은 사찰건축에도 빼어난 안목을 지녔던 자장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주는 것이어서 불교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홍교수는 "자장에 의해 이뤄진 통도사 개창과 금강계단의 조영 그리고 황룡사 9층탑 건립 등을 볼 때, 자장은 불교사상가로서 또는 외교정치가로서 평가됨은 물론 조영예술가로서의 평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자장의 조영관을 밝히기 위해 자장에 의해 이뤄진 불사리분안(佛舍利分安)과 통도사의 입지 선정, 통도사의 개창과 초창(初創)형식의 조영 그리고 황룡사 공간구성 형식의 변화와 황룡사 9층탑 건립 등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결과를 크게 세부분으로 정리했다.

첫째, 자장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통도사의 입지를 선정하고 신앙의 결정체인 불사리를 봉안할 계단(戒壇)을 설치함으로써 통도사의 장소성을 분명히 했다. 둘째, 자장은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통도사 가람구조의 기본 틀을 이루었으며, 남북축을 주축으로 금강계단의 중심성을 표현함으로써 산자사찰에서 보이는 수직적 공간구성체계를 도입했다. 셋째, 자장이 황룡사의 공간구성형식을 보고 탑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층탑을 건립함으로써 비로소 구조적인 안정감을 갖춘 초기 신라사찰의 원형을 갖추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장에 의해 이뤄진 불사리분안과 통도사의 입지선정, 금강계단의 축조와 통도사의 개창 그리고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은 "당시 신라가 처해있던 정치사회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자장의 특별한 의도가 물리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자장이 지닌 조영관의 구체적 표현"이란 것이 홍교수의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인 터 뷰

"성철, 전통과 현대 이어준 거인"

돈점연구로 미국서 박사학위 취득

윤 원 철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원효나 보조를 대상으로 학위논문을 쓰려 했으나, 90년도에 송광사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의 돈점논쟁을 지켜보면서 성철스님의 이론을 세계에 소개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윤원철교수는 "현대에 재현된 불교의 근본교리를 둘러싼 진지한 논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성철스님의 돈오돈수론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교수는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도미, 뉴욕주립대 종교학과에서 '한국불교의 돈오돈수론'으로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지난 여름 귀국, 9월1일자로 서울대 종교학과 신임교수에 취임했다.

"오늘날 전통과 현대사조는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데, 성철스님은 철저하게 전통의 입장에 서서 현대를 이어주는 거인의 역할을 보여 주었다"며 윤교수는 성철스님이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성철스님은 수행풍토의 조성 외에도 한국불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윤교수는 귀국후 한국불교를 다시 본 소감에 대해 "학계는 아직 접촉이 적어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불교서적 출판과 불교방송, 교계신문 등을 보면서 놀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서적 출판이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불교 서적을 그대로 베끼는 등의 문제점이 아직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윤교수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단절된 전통사상의 구현에 둘 예정"이라며, "옛날식의 호교론적 방식이나 기계적 짜집기식의 연구논문은 오히려 전통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연구활동 외에 '원전 다시 읽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윤교수는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불경을 쉬운 언어로 풀어써야 한다"고 전제하고, 깨침과 닦음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불교학의 전통과 현대의 단절을 잇는 좋은 방법이란 뜻이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자양성이 시급한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보조, 지눌, 퇴계 등이 유명해진 이유는 학문적 노력 때문"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해외 포교활동도 중요한 일이지만 서양인에게는 학문적 언어가 쉽게 받아들여 진다는 이유에서이다. 윤교수는 마지막으로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서 스님과 불교학자들간의 교류를 넓혀 상호간의 이해를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경〉

두살짜리 아이에 언어장애 위험이

문 제나름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살짜리 손녀가 구개열이라고 입천장이 갈라져 언어장애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 강춘금)

답 그것은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내게 다가오는 고통이란 모두 수억겁을 두고 쌓이고 뭉쳐 온 업이 과보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현실의 과보가 갖가지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고(苦)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고집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장본인 즉 '참나' 또는 주인공을 굳게 믿고 그 자리에 일체를 놓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는다면 녹음테이프에 앞서 입력된 것을 되지울 수 있는 도리와 마찬가지로 고가 녹아내리는 도리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업보다' '죄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경계)은 자성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닥치는 어떤 일도 긍정 아닌 게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믿듯이 자성 부처님을 굳게 믿으십시요. 믿으면서 언어장애가 오지 않도록 자신의 뿌리를 관하세요.

산불이 났을땐 어떻게 하나요

문 얼마 전에 단풍구경에 나섰다가 먼 산에 산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끄고 싶었지만 달리는 차속에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스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광주시 북구 운암동 · 박대환)

답 그것은 그것대로 마음의 산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파괴처럼 보일지라도 한번씩 그렇게 해 줌으로써 살 수 있는 기반이 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설령 모든 나무가 타 죽는다 하더라도 겉보기처럼 단지 타 죽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진화의 도리도 있습니다. 껍데기가 죽었다고 해서 속의 씨까지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태워서 안될 게 있고 반대로 태워야 할 게 있고, 꺼서 될 일이 있고 안 꺼도 관찮은 일이 있겠지요.

부처님 말씀따라 공부하는 분이라면 그러할 때 믿음 속에서 일어난 한 생각의 힘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천도가 된다는데

문 「공부가 된 사람이 고기를 한 점 먹는 것은 천도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서울 성동구 용두동 · 최연택)

답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피와 살의 일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고기 한 점은 벌써 사람 몸의 일부로 인도환생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간편하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쇠고기 한 점이 곧 소 한마리와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소가 무명을 벗는 게 되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살생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줄 알면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도 내 생명이 되니 살생이라는 이름조차 붙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고기 한 점 입어 삼키는 그 찰라에 소의 무명은 벗겨지고 사람으로 화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도리를 투철히 모르면서 함부로 희롱 삼아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문 저는 불교에 관련된 책만 대략 5백권 가량 독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되질 않습니다. 이른바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정완모)

답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다 해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열 번, 백 번 읽고 또 읽어 줄줄 외울 지경에 이르렀다해도 단 한 말씀 내가 집어 먹을 줄 모른다면 그런 공부는 헛공부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짓 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합니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서 집어 먹을 생각은 아니하고 음식 이름만 외어대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맛을 보아야 맛을 압니다. 가령 율장이가 개구리한테 땅 냄새가 어떻더냐고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많은 말을 해주었다 해도 나중에 율장이가 개구리되어 뜰에 올라가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식을 여러해 계속해도 될까요

문 저는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단식을 여러 해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겠는지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 · 장호순)

답 효과를 보고 계시다니 어떤 효과인지는 글라도 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나 몸으로 하는 단식은 좋은 선생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굶이 몸 단식을 하기보다 마음으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 것은 몸을 비워서 탈 난 곳을 고치겠다는 시도겠지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먹는 사이없이 먹었다면 그대로 단식이겠지요. 음식을 내가 먹었지만 몸 속의 모든 생명체가 같이 먹었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유죽을 받아 잡수신 도리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긍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한장의 佛字가 가정과 불교를 일으켜 세웁니다.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을 위한 2천만 佛字 보급

"불자님의 정성어린 동참이 한국불교의 숙원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본 佛事는 교육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애타게 염원하는
스님의 뜨거운 구도의 열이
빚어낸 역사입니다.

2천만장의 장대한 서원
오직 佛字만을 화두로 잡은 용맹정진
오늘도 그의 붓끝에는
새벽 안개처럼 밝은 향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 작품 : 無佛스님(무량사 주지)
"



교계유일의 예술대학

본 대학은 88년 개교이래 불교교육 연구와 인재양성, 부속연구기관설립 등 대학으로서의 내실을 다져온 교계 유일의 종합예술 대학입니다.
앞선 교육이념, 철저한 교육관리와 뛰어난 교수방법으로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을 양성하는 저희 대학의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넓은 세계로 웅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불사에 동참하시게 되면

▶ 동참자의 모든 작품에는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 동참기념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작품의 희소가치를 입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 희망시에 동참자의 이름도 작품에 넣어 드립니다.
▶ 일련번호 따라 동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학 본관 주춧돌에 새겨서 그 뜻을 길이 남기게 됩니다.

문의: ☎ 725-7527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예술대학**: 불교학과/유초등교육학과/음악과(작곡·피아노·성악)/국악과(기악·타악·성악) (02)725-7527 ■**교육연구소**: 법회교육연구부/시청각교육연구부/불교음악연구부/법회조직연구부/교육행정연구부 (02)725-7529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자격-국교3, 중2학년/특정-음악전공자 개인별지도/매주토·일/수시등록가 (02)723-1525 ■**청소년가야금합주단**: 자격-고등학교 1학년, 2학년/특정-예대진학지도중심/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 (02)723-1528 ■**주부가야금반**: 자격-초급, 중급, 고급의 일반주부/특정-개인지도 실시/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02)723-7528

주부를 위한 『가야금·판소리』 강좌

주부들의 음악적인 정서함양과 예술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초보자 및 중견 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실기지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개강: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4시(수시접수)
▶ 장소: 본원 가야금 연습실
▶ 회비: 월 8만원
▶ 특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별도의 연습시간을 협의, 보충지도 가능

대동불교예술대학
국악과 / 가야금합주단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창 간 기 념

특 별 대 담

L.랭카스터교수 정 병 조 교수

"한국불교 전통살리면 인류의 희망일수 있어"

선교융합 정신은 현대문제 풀어나갈 해답

서구식 사고에 염증…UCLA서만 2백명 불교 연구

세기말의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왜 물질문명의 첨단을 치닫는 서구에서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미국에서 한국불교학 연구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최근 세계적 성보 고려대장경 전산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리대 · 불교학)를 지난 2일 동국대에서 정병조교수(동국대)가 만났다.



◇ 랭카스터교수(미국버클리대)는 정병조교수(동국대 · 사진 오른쪽)와의 대담에서 "한국불교에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풀어갈 원리가 담겨있다"며 선교융합적 전통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조=랭카스터 교수님은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의 붐을 조성시킨 장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불교 이해와 그 전망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사회에서의 불교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랭카스터=한마디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학술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불교신행을 따르는 이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출가스님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재가신자들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병조=왜 서구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까요? 또 어떤 계층이 주로 불교를 신행한다고 보십니까?

대학중심으로 불교전파

▲랭카스터=서구불교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북미나 유럽쪽으로 이주한 이민세대에 의한 불교전파입니다. 특히 동양계의 타일랜드 월남 일본 한국인들의 전통종교인 불교가 자연히 서구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두번째는 자생적 불교라고나 할까요. 주로 합리주의적 사고에 염증을 느낀 지성인들에 의해 선수행이 선호되었습니다. 이들 계층은 주로 재가신자였고 지금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이민세대 외 2세대 3세대는 거의 서양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80% 정도가 서양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양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양의 불교신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의 중산계층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를 중심으로 불교사상이 전파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병조=교수님은 어떤 인연으로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랭카스터=1954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원에서 동양학, 특히 불교학쪽으로 연구해 볼 결심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불교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헌섭렵을 해나가던 중, 한국불교에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정취가 엿보였습니다.

그후 1970년에 처음 한국을 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헌으로 본 한국불교와 너무 다른 것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클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한국불교관계 서적은 단 2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선교사가 쓴 것이어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문헌상으로 한국불교는 세계속에 '없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한국불교는 그 다양한 신행체계, 독특한 선풍, 열화같은 신심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불교 연구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병조=아직도 버클리대학에 한국불교책이 2권뿐인가요?

▲랭카스터=아닙니다. 이젠 제법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정병조=한국불교의 전통은 선입니다. 물론 선교융합적 전통이 강하지만 서양에서는 주로 일본의 선이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또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특징을 비교해 주신다면?

본질변한 일본불교

▲랭카스터=일반적인 말씀일런지 몰라도 일본불교는 종파주의적 색채가 강합니다. 예컨대 조동종 임제종 정토종 등으로 분화되었을 뿐아니라 고유의 선도와 많이 융합된, 이를테면 '변질의 불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승적 특징이 있습니다. 정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교융합적이면서도 초종파적 특성을 지닙니다. 또 한국불교는 고유의 전통성이 온존하고 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서양종교 전통이 고유의 문화를 말살시켜온 데 반해 평화적이며 조화로운 태도이지요. 그래서 한국불교는 인류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새롭게 풀어갈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국불교의 전통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 *"한국불교는 고유의 전통성이 온존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종교 전통이 고유의 문화를 말살시켜온데 반해 평화적이며 조화로운 태도이지요. 그래서 한국불교는 인류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새롭게 풀어갈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국불교의 전통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뿐 입니다."*

▲정병조=아마 우리는 스스로의 장점을 잊고 외부지향적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에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가불자들에 대해서 충고나 조언을 주실 일은 없는지요?

▲랭카스터=이방인인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방면에 구체적인 연구도 없구요. 다만 정교수님도 참석하셨던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국제회의(1991, 미국 버클리대학 주최 한국종교세미나)와 같은 성격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국제회의를 열 생각입니다. 그때 한국 재가불자들의 의식성향에 관한 제 논문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이번에 내한하신 목적이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장경 전산화 작업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랭카스터=지금 우리는 전산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경의 전산화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미 스리랑카와 타일랜드의 파알리(Pali)어 남전대장경은 완전히 전산화 되었습니다. 수백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한장의 디스켓에 입력됩니다.

또 용어를 풀어쓴다든지, 관련 논문을 찾는 일 등이 광범한 가정의 P.C 로 다 해결됩니다. 현재 해인사의 장경연구소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병조=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장경 전산화는 '화두'

▲랭카스터=역시 입력과 자금문제입니다.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불가피한데, 고도의 전문성을 띤 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타일랜드 대장경 전산화 과정을 말씀드리면, 80명 정도의 인력이 약 3년 동안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도 만만치 않구요.

또 한문글자는 한국 일본 중국의 표기법이 달라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약자를 많이 쓰지만 한국은 거의 고자(古字)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를 세 나라간의 공통된 한자사용이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이 부디 이 대장경 전산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의 협력이 있으셔야 할 줄 압니다.

▲정병조=대장경 전산화는 우리시대의 '화두'입니다. 이 대작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한국불교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무척 고무적이고 또 시사되는 바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한국불교에 대한 묘한 알레르기를 느끼는 분위기도 상존하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불교가 보다 성장하려면 역시 튼튼한 학술적 기반과 성실한 신행이 뒷받침돼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뜻에서 랭카스터교수 같은 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한국학생들이 많습니까?

▲랭카스터=이미 로버트 버스웰(U.C.L.A. 교수) 박성배(뉴욕주립대 교수) 이주형(서울대 교수)씨 등은 교수로 활약하고 있고, 또 지금 박사과정에서만 3명의 한국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를 전공코드로 채택한 대학은 버클리(Berkeley) 스토니 부루크(Stony Brook) 컬럼비아(Columbia) 하버드(Harvard) 하와이(Hawaii)대학 등 거의 모든 유명대학이 망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은 편입니다. U.C.L.A. 같은 곳에는 2백명이 넘는 미국학생들이 한국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육식을 안 하시던데 혹시 오계 때문입니까?

▲랭카스터=부처님 제자라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지요. 건강상 문제도 있구요. 가급적이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정병조=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불교의 특성은 역시 그 수행중심적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청정한 수행과

의식수준 국제화 돼야

생활불교의 정착이야말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여전히 미흡하였습니다. 한국불교를 여전히 중국의 아류로 보려는 견해이 불식되려면 우리의 의식수준 또한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눈길을 세계로 돌려 한국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다원종교의 현실 속에서 우리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결코 교세의 확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표방하는 것이 진리에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점이 그 경쟁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보살이 되려는 서원을 품을 때 불교의 발전은 기약된다고 확신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線 佛教美術研究院
朴 京 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3-103
☎ 911-2252

중앙승가대학 부설
불전 국역 연구원
원 장 혜 남
대 중 일 동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 929-9991

國民銀行
安城支店
支店長
申時均
☎(0334) 74-2011~4番

중앙승가대학
학 장 임 송 산
교수 및 교직원 일동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 925-5507~9

學校法人東國學園
理事長 吳 綠 園
東國大學校
總 長 閔 丙 天

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1〉

◇ …… 저 울울창창한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곧은 길은 없을까? 가르 ……◇
◇ …… 침을 알고자 경서를 처음 펴드는 이들은 물자건 아니건 우선 그 방 ……◇
◇ …… 대함에 질리게 된다. 마치 미로에 들어선 느낌이다. 무언가 좀더 체 ……◇
◇ …… 계적이고 단출한 입문서같은 것이 있었으면…. 이런 바램을 안고 ……◇
◇ …… 산문 안으로 들어가 본다. 갓 삭발한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
◇ …… 교과과정의 경서를 차례로 쉽게 풀어 옮겨 본다. 〈편집자 주〉 ……◇

■夫初人之心은 須親善惡友하고 親近賢善
부초인지심 수원리악우 친근현선
하며 受五戒十戒等하여 善知新學初心하라
수오계십계등 선지지범개차
但依金口聖言이언정 莫聞雜流妄說이어다
단의금구성언 막순용류망설
旣已出家하여 參預淨衆하니 常念和合順
기기출가 참예청중 상념유화신순
하되 不得我慢貢高니라
부득아만공고

무릇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처음으로 마음 먹은 이(초발심자)는 모름지기 나쁜 벗(계율을 지키지 않고 세속적 욕망을 즐기는 이)을 멀리하여야 한다. 반면 계행이 청정하고 지혜가 밝은 이를 가까이 하여야 한다.

오계·십계(또는 일체의 비구·비구니계를)등을 받고 어떻게 하여야 계율을 생명처럼 지켜 잘 따르고, 어떤 경우에 계율을 어기고 범하게 되는 지도 잘 알아야 한다.

오로지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만 의지할 것이며 용렬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의 부질없는 말을 따라서는 안된다.

이미 이 몸 출가하여 세속의 욕망 버리고 청정한 수행의 무리에 참여하였으니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공손하기에 힘쓸 자언정 교만한 생각으로 잘난 척, 자기를 높이는 짓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大者爲兄하고 小者爲弟니 慮有諍者거든
대자위형 소자위제 당유쟁자
隨順和合하여 但以慈心相向이지 不得惡語
수순화합 단이자심상향 부득악어
傷人하라
상인
若出粗獷言하여 誘動人非하면 如此出者는
약야기광언 논설시비 여차출가
全無利益이다
전무이익

나이 많은 이 형이 되고 적은 이 아우가 되며 혹시라도 다투는 이가 있거든 양쪽 주장을 잘 화합시키되 오로지 자비심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할 것이지 모진 말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만약에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겨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시비를 따지려 한다면 그같은 출가는 하나마나, 마음공부에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된다.

■財色之事는 慈於遠近하니 省己知非하여
재색지화 심어독사 성기지비하여
常須愼護하라
상수원리
無緣事故에 不得入他房院하며 當須遠離하여 不
무연사고부득입타방원 당병처 부
得强知他事하라
득강지타사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의 독보다 더 심하다. 항상 지신의 마음자리를 관하고 그릇됨을 밝혀 모름지기 이를 멀리 여의도록 할 일이다.

꼭 참여해야 할 일이 없으면 이 방, 저 방, 이 집 저 집으로 드나들지 말아야 하며, 승기려 하는 일을 굿이 알아서 도움될게 없으니 억지로 캐어내려 해서는 아니된다.

■非六日이면 不得洗浴爲衣하며 垢膩衣에
비육일 부득세욕위의 구니의
不得高聲說笑하고
부득고성설소
行益次에 不得携手突過前人하고
행익차 부득휴수돌과전인
經行次에 不得離衆遠行하며
경행차 부득이중원행)

"만약에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겨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시비를 따지려 한다면 그같은 사람의 출가는 하나마나 마음공부에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된다."

옛새가 아니면 속 옷을 빨아서는 안되며(6일·16일·26일에는 빨래하느라 이·벼룩 따위를 죽이게 되어도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율법에 근거함)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는 왝왝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코풀고 침뱉지 말 것이며, 모든 대중행사(법요식·공양등)에서는 당돌하게 차례를 어겨서는 안되고 거닐 때는 옷깃을 풀어 헤치거나 활개쳐서는 아니된다.

■高談次에 不得高聲大笑하며
언담차 부득고성희소
非要事거든 不得出於門外하고
비요사 부득출어문외
有病人이면 須起心看護하며
유병인 수자심수호
見賓客이거든 須歡然迎接하여
견빈객 수흔연영접
遂尊長이어든 須起居問訊하며
수존장 수기거문신하며
범전징 수숙공회피

말할때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서는 안된다.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산문 밖으로 나다니지 말고 병든 이가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심으로 돌보아 주고 손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윗 어른을 만나거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켜서야 한다.

龍眼

갓 출가한 사미승 기본서

초발심 자경문은?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은 고려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과 신라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그리고 고려말 야운선사의 자경문(自警文)을 합본한 책이다. 이 책은 첫 발심수행자의 지침서이며 처음 출가한 사미승의 기본서이다.

계초심학인문은 수행정류를, 발심수행장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켜 거룩한 행을 닦는 글이다. 자경문은 수행인이 스스로를 일깨우고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상 법석

"복은 스스로 지은 만큼 받게 돼

큰스님들의 수행 결정체인 설법은 그 자체가 깨침의 육성이다. 때문에 쉬운 생활용어와 자상한 비유로 엮어진 설법을 통해 우리는 지혜의 눈을 얻고 올바른 삶의 길을 터득할 수 있다. 본지는 바른 신행과 행복한 삶의 길잡이로 매주 큰스님들의 지상법석을 마련한다. 〈편집지 주〉



월하 스님
〈조계종 중정〉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든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만약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어둡고 밝은 것이 어떤 인연과 거래가 있다고 할 것이냐 궁금하기 한량없습니다. 모든 앎이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애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가 지은 만큼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벌은 받는 것이지 다른 누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주듯 복을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도 누가 다른 사람이 떠밀어 주듯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을 잘못하면 스스로 벌이 되는 것이고 행동을 잘하고 마음을 잘 쓰면 복이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면 복이

작게 베풀어도 큰공덕

되고 어떻게 행동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하고 안하고의 행동의 지는 각자 자기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시수대공덕(小施受大功德)"이란 조그마한 것을 베풀어 큰 공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함경이란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모친의 유래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친께서 생전에 궁전에 계실 적에 궁전에는 사방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곳을 전부 금은과 유리로 깔았습니다. 땅이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고 칠보로 장엄이 돼 휘황찬란했어요. 거기에다 백미의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기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난다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난다는 부처님 사촌입니다. 부처님 모친에게는 조카가 되지요.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숙모께선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복을 수용하게 됐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친이 전생에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당시 쌀 한되를 길가 돌부처님에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복을 수용하게 된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앞으로 5백생은 전륜왕위를 지어 전륜왕이 되고, 5백생은 제석신의 몸을 받고, 5백생은 대국 왕후의 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몸에서 천불을 출생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청정광여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그 공덕, 즉 쌀 한되의 공덕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마지막에 가서는 청정광여래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걸 보더라도 조그마하지만 진실한 공덕을 쌓은 사람은 쌀 한되를 부처님께 올린 공덕처럼 크나큰 복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 살아가는데 아무런 재해가 없어야겠고 복도 많아야 되지요. 명도 길어야 하는데 중간에 아무런 재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중생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죽고사는게 없어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재해라는 것에도 구애를 안받고 모두 초월했지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걸 필요로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먹어야 하고 입어야 되고 권해야 되며 욕심이 있으니 뭐든지 가져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유모어가 많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한 사람은 남을 잘 웃기고 남에게 이 맛살 찡그리는 일은 안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야 남을 웃기지 자기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은 남을 잘 웃기지 못하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래 사는 것이나 오래 못사는 것이나 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좋고 편안한 느낌이 없이 살다보면 항상 이마가 찡그려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과 모든 힘이 위축이 되고 결국 죽게 마련입니다.

중생계는 제압등 장애가 있습니다. 불교에 조예가 깊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압을 요령있게 피하고 잘 이해하며 잘 해석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막혀서 자기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안생기고 혼미에 빠집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 성 사
주 지 정 성
신도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3동 939-2
☎ 914-6532

안양시불교연합회
회 장 재 진
회원일동
☎ (0343)44-9806
43-8540

동 명 불 원
주 지 덕 천
신도일동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496-3
☎ 주지실 470-0108
사무실 488-7027

불 광 사
주 지 조 광 현
신도일동
은평구 불광동 25-1
☎ 359-5369

연 화 사
조 실 영 허 녹 원
주 지 자 음
신도회장 이보리행·대중일동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09-1
☎ 962-6186

정 룡 사
마 야 합 창 단
주 지 김 법 운
합창단·신도일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

남북통일 기원 청동대불 봉안도량
호 국 각 원 사
주 지 신 법 인
총 무 서 대 원
대중일동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83
☎ (0417)61-3545/62-1532

신 흥 사
(정소년 수련원)
주 지 오 성 일
신도일동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42-1
☎ (0339)57-2695/3916

지상 법석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야 보살"

육체는 인연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가
마음 닦으면 일월보다 밝게 살수 있어

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야 하는데 지혜가 밝으면 그런 묘리가 금방 생긴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죽지도 살지도 않은 그런 경계까지 밝혀서 잘 실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생사의 구

생사를 초월해야

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하고 그것을 초월하느냐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사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죽으나 살으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별스럽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형성

합니다.

옛날 등운봉스님이 계셨는데 그 절은 크고 대중도 많았어요. 밥짓는 공양주가 있었는데 솥에다 불을 지피다 잘못해 옷에 불이 붙어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주를 안했으면 타죽는 일이 없었을텐데 공양주를 해서 타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공양주를 하라고 권한 사람이 등운봉스님이라 그 스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 죽으면 염라대왕에게 한번 거친답니다. 염라대왕은 그 사람이 생전에 복짓는 일

> *"육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연이 다하면 각각 흩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뼈는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모든 액체 소변이나 피, 고름은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로 가고 또 체온은 자연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자 타서 죽은 이가 발을 구르면서 거기 가면 있는데 못찾고 왔다고 하더란 거예요. 염라대왕이 그럼 네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 스님이 마당에 있었어요. 가서 붙잡고 염라대왕에게 가지고 했더니 무슨 이유로 나를 오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자 스님은 한마디만 하고 가지고 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자기의 성품과 마음자리는 본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죽는 마당에서 육체에 치중해봐야 허망하고 허사라는 걸 깊이 깨닫고 나면 알뜰히 먹고 입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히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그만이고 적당히 입으면 그만이지 좋은 것 갖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활이 가벼워지고 그런 생각이 나기 전에는 부족감이 느껴지지만 그런 것은 사람을 용렬하게 만들고 오래사는 것도 아니니 불교 믿는 분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츰차츰 익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들이나 보살들은 당신 생각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해 남을 위해 노력하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기주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처님소리 들을 수도 없고 보살소리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당장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해 봐야 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실천에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과 목적을 뚜렷하게 정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지요.

육체만 죽고 사는 것이지 자기 마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연이 다하면 각각 흩어진다고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뼈는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모든 액체 소변이나 피, 고름은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로 가고 또 체온은 자연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 움직이는 동작은 풍에 속하는데 그것 역시 풍으로 돌아가고 네가지가 각각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섞여 형성되었기에 그것을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육체처럼 깨끗한 것이 없고 육체처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몸 밖에는 아무 물건도 없다해서 몸이 제일이라고 위하는 것만 알고 몸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애를 쓰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몸에 도움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먹죠. 그러나 육체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죽게 마련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무상하다 합니다. 이면의 자기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얘기를 예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께 얘기하고 자

을 많이 했나 복을 갑하는 일을 많이 했나 살피는 것이죠. 복짓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안내해 사람으로 또 태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인으로 태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조사나 재관을 염라대왕이 다 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야 어떻게 죽든 염라대왕 앞에까지 갔는데 염라대왕이 너는 생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붙에 타 죽은데 대해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던 터에 마음 먹은 대로 얘길 했어요. "등운봉스님이 공양주를 억지로 시켜 밥을 짓다 옷에 불이 붙어 죽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스님이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을 잡아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 등운봉스님을 데리고 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냈어요. 절에 가면 가람신이 있는데 가람신은 도량전체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가람신이 저승사자에게 어딜 가느냐고 물었어요. 등운봉스님을 데리러 왔다고 했더니 찾아보라고 하면서 내가 12년을 여기 있었어도 등운봉이란 사람은 본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들이 찾아보니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가서 염라대왕에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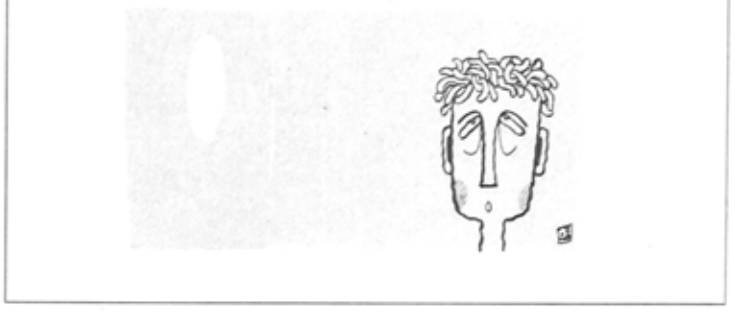
불교 믿는 근본 알아야

키워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자기 몸도 가꿔야 하고 좋은 것도 사서 발라야겠고 좋은 옷도 입어야했고 이것이 중생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래사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 아무리 치중해봐야 성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몰라 자꾸 거기에 치중하고 그 야단치다 인연이 다해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엇을

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불교 믿는 보람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중생이에요. 중생들은 부모에 걸리고 형제간에 걸리고 부자지간에 걸립니다. 다겁다생으로 내려와 부모도 많고 형제도 많고 내외간도 많은데 하필 금세간에 부모와 내외와 자녀들에게 끌려 그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게 허둥대는 것을 차원높은 경지에서 보면 그야말로 가소롭고 우습게 생각되지요.

세상을 살아 나가되 차츰차츰 그런데 뜻을 두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불교 믿는 근본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지까지 간 이들은 두루 광명이 어디고 다 비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사람이 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닦아서 빛을 내면 일월보다도 밝아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을 사용할 줄 모르면서 해뜨기를 기다리고 달뜨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하고 깊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성을 바로 보기 위한 수행을 열심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①



과학은 "부분적" 불교는 "전체적"

연재를 시작하며…

붓다와 더불어 붓다의 제자들이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이상을 실현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수행하고 생활하였는지는 오늘날 승단의 존재 의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한 삶을 엮어가는 구도자의 길은 변함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 없이 많은 길이 있으며, 누구나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최선의 길이기를 바란다. 특히, 종교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아집은 더욱 심한 편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모두 다 제 몫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75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서 힌두교 성인의 연두 연설 중에서 우물안의 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불교의 자타카에 나오는 것인데 매우 비유적 이다. A라는 개구리가 어떤 우물 속에서 태어나 거기에서만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어느날 바다에 살던 개구리 B가 육지에 기어올라 왔다가 그 우물에 빠졌다.

A: "너는 어디로 부터 왔지?"

B: "바다에서?"

A: "바다는 얼마나 크냐? 이 우물과 같으냐"

B: "바다를 이런 좁은 우물과 어떻게 비교한단 말이냐"

A: "이 우물보다 더 른 세상이 있을 턱이 없다. 이 거짓말쟁이 녀석, 어서 썩나가지 못해"

우리 불교인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우물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터널을 뚫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며, 이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불교와 과학의 터널을 뚫어 보고자 한다.

뉴턴은 "자연탐구상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제1법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충실하고 진실한 원인 외에는 어떤 원인도 자연의 사물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제2법칙은 같은 결과는 똥일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제3법칙은 물체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실험적 사실에 의해 그 성질이 모든 물체에 있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이 어떤 물체이건 보편적 성질로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원인이 다시 여러가지 현상으로 확대되어 보편적 성질로서 확증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현상〉--〈이론〉--〈검증〉의 방법적 순환을 완성하여 연구방법의 한 모형을 이룬 것이다.

그에 비해 불교에서의 선문답은 이렇게 오고 간다.

스님: 달마조사께서 동쪽으로 오신 뜻은 무엇입까?

조주: 뜰 앞의 잣나무니라.

스님: 잣나무를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주: 나도 잣나무를 말한 것이 아닐세.

스님: 달마조사께서 동쪽으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조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과 언어의 논리성을 넘어서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나 개념자체를 파악하고 그 뜰음에 대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대답을 적절한 현실상황으로 응답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명상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발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한 추구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동양문화의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결국 서양문화는 인간중심적으로 정복과 과괴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동양문화는 우주의 전 생명을 대상으로 조화와 질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어떤 명제가 도달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은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불교적인 방법은 상황을 직관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분석적인 물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이상적인 집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은 기초는 기초대로, 본체는 본체대로 부분적으로 완성하여 최선의 전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며, 불교적인 방법은 관조함으로써 한꺼번에 집전체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찾는 방법이다.

불교와 과학의 터널은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으로 인한 인간정신을 과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서구문명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서막이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김 성 규 교수

약 력

· 1955년 경주서 남
· 영남대서 이학박사
· 현 영남대 의과대학교수
· 저서 : 〈물고적 깨달음 과 과학적 깨달음〉×〈우리말 금강경〉×〈세간과 출세간의 만남〉등 다수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인 과 선 원
주 지 정 덕
신 도 일 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정사
성동 불교 포교원
주 지 조 법 경
신도회장 최 보 시
육바라밀회장 성장염각
중고등학생회 어린이회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30-8
☎ 462-1335
FAX 462-1339

진 관 사
주 지 진 관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 359-8410

정 각 사
주 지 이 광 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77-12
☎ 742-1231

목동 청소년 회관
관 장 : 이 광 우
국 장 : 이 명 우
부 장 : 지 수 증
임직원 일동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BL1호(4단지)
☎ 646-0181~5

성 국 사
주 지 덕 봉
대 중 일 동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산400-16
☎ 902-4455

흥 국 사
주 지 황 일 면
신 도 일 동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331
☎ (0346)65-8010

용 수 사
주 지 조 법 호
신도회장 이 신 우
대 중 일 동
인천시 서구 성남1동 175-9
☎ (032)573-6089, 576-8498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두 스님 사이의 꿈과 더불어



1

며칠 걸려 올라선 절벽 아래 거기 마애불상 있으니…

"과연 내 제자인 너는 시인이므로 시인답게 울 줄 아는구나. 허나 너는 시인이기에 앞서 중이로다. 중에게는 정이 많으면 도가 멀어지거니와 그럴지라도 시를 짓는 중일진대 어찌 도만…"

상자 안에는 닥종이로 된 책 24권이 비단 보자기로 씌운대로 들어 있었다. 책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숨을 그때서야 내쉬는 것처럼 말없는 기쁨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림·최 규 일

푸른 하늘 만한 것이 어디 있으리.

고려 무신란에 의한 비운으로 기울어져 당장 한 그릇의 밥에도 궁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인 임춘(林椿)은 그의 시와 시론 역시 오랜 불운으로 몇 백년 동안 세상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가을 바람인들 어찌 빛인 낙엽들을 가만 두고 말겠는가. 우수수하고 가지에 남은 잎새가 떨어져 날리고 이미 떨어져 깔려 있는 것들은 그것대로 바람이 시키는대로 더러는 뒤집히며 더러는 서걱이며 한 무더기씩 구을러 가는 것이었다. 그런 낙엽이 구을러간 자리에 지난해의 묵은 잎새도 반쯤 썩어서 월떡 드러났다.

과연 이인로(李仁老)들과 어깨를 겯고 당대의 시단을 주름잡던 그 문기론(文氣論)의 사명을 한 몸에 담고 있던 천재 임춘이 그의 참담한 말로 이래 세상에서 잊히는 바가 되었음은 저으기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무릇 오래동안 잊혀진 존재가 어찌 임춘 하나 뿐이겠는가. 한반도의 세월은 시인의 보석 따위를 돌멩이로 알아 자갈밭에 던지기 일쑤였다.

중세의 그 장엄하기까지 한 시론으로서의 주기적(主氣的) 문학관을 내세운 그 기상을 다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시대는 무정하게 흘러간 것이다.

그렇게 되자 고려 중기의 그 자존심 높은 죽림고회(竹林高會)의 핵심 인물이었던 임춘은 망각의 저 편에 과묻혀 버릴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쓴 시들도 이상하리만치 자취를 알아볼 수 없는 인멸 그것이었다.

세월은 모진것으로, 한반도의 삶과 죽음과 함께 흘러오는 중에 고려 시대를 지나고 조선조 후기 숙종 조에 이르러 인담(印潭)이라는 시승(詩僧)을 맞이한다.

그는 서산 사명 계열의 이름 높은 산문에도 속하지 않은 어줍잖은 무사승(無師僧)이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섬길 만한 스승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리"하고 그 자신의 신세를 호젓이 슬퍼하는 바였다.

가을이 가고 있었다. 퇴락한 충청도 태안반도 밖 무욕도(無慾島) 암자 주위도 가을 과도 소리로 사뭇 음추러들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혼자 오후불식의 맑은 몸으로 선정에 들어 묵조(默照)의 한 몽안을 보낸 뒤 잠이 들었다.

그랬다. 꿈을 꾸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꿈을 꾼 것이다. 그것도 먼 곳으로 여행하는 꿈이었다. 그 꿈은 송도에서 몇 백리 상거의 마식령 산맥의 별봉인 뇌장산(磊藏山)에 당도하는 대목에서 거의 생시와도 방불하였다.

뇌장산 중턱의 깎아지른 절벽에 마애불이 새겨져 천고(千古)의 풍상에 견디고 있는 것은 실로 놀라웠다.

인담은 저절로 고개를 숙여 그 마애불상 아래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때였다. 마애불의 절벽 밑에 큰 굴이 캄캄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비록 자랑할 것은 없으나 그동안 착실한 공부를 한 선승인지라 자극한 도인에게 꿈 따위를 꾸지 않는 바에 다가가 있는데 난데없이 꿈을 꾼 것은 무엇이며 이 따위 굴을 보고 무서워하는 바는 도무지 출가의 납자답지 않았다. 반야심경의 그 무서움 없는 경지는 그저 말 뿐이던가.

어쨌거나 인담은 그곳에서 물러나 다시 오던 길로 돌아왔다. 한양성은 중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그는 행주나루에서 당진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루를 묵는 밤중에 다시 꿈을 꾸었다.

꿈 속에 늙은 스님이 나타났다.

"너 인담아, 스승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참된 중에게는 스승 따위가 없느니라. … 내 말을 믿고도 굳이 스승을 원한다면 내가 네 스승 노릇을 해주마. 내 법호는 담인(湛印)이다. 그러니 네 법명 인담을 거꾸로 쓰면 내 법호가 되느니라. 이것도 기연이겠다. … 나는 고려의 중, 너는 이성계 왕조 저 하대의 조선 중이로다. 이렇게 아득한 세월을 격하여 스승과 제자가 하나로 됨이 불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오 스승이시여. 담인스승이시여" 라고 인담이 즉각 감복하였다. 흐득흐득 울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울지 말아라. 네가 우니 나 또한 가슴이 복바치는구나 … 과연 내 제자인 너는 시인이므로 시인답게 세상을 울 줄 아는구나. 허나 너는 시인이기에 앞서 중이로다. 중에게는 정이 많으면 도가 멀어지거니와 그럴지라도 시를 짓는 중일진대 어찌 도만 챙기고 장을 잘라 버릴 수 있겠느냐."

"…."

"그런 즉 내가 고려 시대의 빛나는 시인 하나를 너에게 소개 할 터이니 … 어서 그 시인의 문집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갈지어다. 그곳은 황해도 동쪽 뇌장산이니라."

"스승이시여"

"됐다. 이제 나는 갈테니 어서 네 할 일을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스승 담인은 그 자취를 감자기 운무 가운데 감추었다.

그 꿈에서 깨어났다.

인담은 절벽 마애불상 아래의 굴 안으로 더듬더듬 들어갔다. 그의 의지라기보다 그 안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굴 안은 깜깜하였다. 꿈 속에서 무서워 했던 것과는 달리 인담은 그곳이 무척이나 낯 익은 것으로 여겨졌다. 혼자 중얼거리기까지 할 만큼.

"딱 편안한 곳이로다. 이곳이야말로 안양세계(安養世界)의 한군데 아니랴."

그는 한동안 굴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굴의 높이는 밖에서 생각하기와 달리 사람이 앉아 있기에 불편하지 않았다. 다만 일어서서 움직일 때는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였다.

특이한 것은 그 굴 안에는 습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짐승이라도 살던 곳인지 따뜻한 기운의 흔적도 느낄만 하였다.

인담은 아전으로부터 된 채찍을 맞은 얼굴 한쪽에 아직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 숙종 2년 소위 요승 처경(處瓊)을 처형한 뒤 비록 산중일지라도 승려들의 운신이 무척 조심스러웠다. 이런 시절의 여행은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인담은 외딴 섬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처경이 주장하는 미래불 미륵부처님이 곧 온다는 주장으로 검거된 사실도 몰랐으며 갖은 고문으로 송장이 되다시피 한 채 주살된 사실도 통 도르고 있었다. 나라는 노론(老論) 송시열의 숙청에 이르는 당쟁으로 험악한 나날이었으니 한 뜻 있는 승려가 세상을 바로 잡고자 하는 예언을 미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런 사람을 요승으로 제거시켰다.

그런 뒤끝에 인담이 황해도 뇌장산 암굴에까지 왔으니 자못 아슬아슬한 일이었다.

"아니!"

하고 인담의 손이 굴 안창을 어루만지다가 어떤 상자를 알아본 것이다. 그 상자는 굴 바닥의 낮은 곳에 알맞게 반쯤 박혀있었다. 그가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올렸다. 가로 2자 세로 1자 그리고 높이는 반 자가량 되는 듬직한 것이었다.

인담이 그 상자를 굴 밖에 가까이 들고 나왔다. 상자는 삼끈으로 확실히 묶여 있었다. 얼른 바람 속에 넣어둔 장도를 꺼내어 그 끈을 잘라 내었다. 끈은 끝이 잘라 낼 것도 없이 삭아있었다.

상자 뚜껑은 마치 열어 줄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쉽게 열렸다. 아니 나무상자 자체가 삭아 있었던 것이다.

"아아"

하고 인담이 낮은 소리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자 안에는 닥종이로 된 책 24권이 비단 보자기에 씌운대로 들어 있었다.

인담이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 보았다.

책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숨을 그때에야 내쉬는듯한 말없는 기쁨을 내보이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인담의 얼굴에도 그 기쁨이 반사되었다.

24권의 책은 그 내용이 똑같은 것 세 벌이므로 각각 8권이 한 질이 된다.

그것을 이 굴 안에 숨겨둔 사람이 한 질만으로는 안되었기에 세질로 채워 넣고서야 안심한 것인지 모른다.

책 표지에는 「서하문집(西河文集)」이라고 행서의 달필로 씌여져 있었다.

인담은 어린 아이처럼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 문집은 시와 서찰 따위를 포함한 산문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또 무엇일까?"

하고 인담이 놀랐다. 맨 밑의 세 질 제8권의 책 갈피에 개암같은 세질로 쓴 소책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인담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성급히 굴 밖에 그것을 들고 나왔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었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였다.

그 작은 책자에는 특별히 표제가 없었으나 첫 장의 허두에 「수미행(須彌行)」이라는 제목 비슷한 것이 앞 세워져 있었다. 마지막 장 그프머리에는 이름이 생략된 채의 간략한 발문이 붙어 있었다. 그 글가운데 고려국(高麗國) 난세(亂世) 신묘(辛卯)라는 표기가 눈에 띄었다. 인담이 손가락을 펴보고 접어보고 한뒤에 그 신미년은 바로 최씨 군사정권이 험난한 국면을 맞은 해로 단정하였다. 실력자 최우(崔瑀)의 아내가 죽자 왕후의 장례로 상을 치르었고 이어서 몽고군이 고려를 침입한 해이다. 그렇다면 4백46년 전의 책이 이제야 햇빛을 만난 것이다.

"담인 스승이시여! 스승이시여! 이제 소승은 원도 한도 없사옵니다" 라고 인담은 마애불 절벽 앞의 깊은 골짜기에 대고 외쳤다. 외치는 소리의 메아리가 겹겹으로 주고 받으며 떠나갔다.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서강불교미술원 원장 정규진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730-8072,(야)648-0930

文化財修理:丹靑技能 708號 鍍金機能 821號 幀畵·丹靑·佛像造成

한국생명과학주식회사 회장 조병선 사장 박형철 충남 천안군 목천면 도장리 148-3 대표전화 (0417)566-6679

불광불교미술원 대표 박갑용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36-6 ☎485-2991

법륜사 주지 이일지 신도일동 동작구 상도2동 363-142 장승 B/D ☎814-9946

구룡사 주지 석지형 통도사 창원포교당 창원시 소답동 九0九 ☎55-6359

치악산 홍련암 주지 운호 신도회장 김정숙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교학2리 153 ☎(0371)45-0448 731-0448

범패사 주지 惺虛法穩 신도회장 법신·주달원·대정각·이정희 총무 福德光·金利男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253 사서함3호 ☎(0395)52-4667

수효사 원장 무구 신도일동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313-3037, 3060

신세대 불자주부 "바쁘다 바빠"

BBS문화센터등 20여 교양강좌 수강 열기

서예·합창·판각등 배우며 불심도 북돋아

아침 11시. 신세대불자 주부들은 집에 없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에 주부들 역시 바쁘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다. 언제나 한가지 이상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요즘 신세대불자 주부들의 생각이다.

신세대불자 주부들은 주부도 전문직이라고 여긴다. 가족에 대한 끝없는 희생보다는 자기개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중시한다.

아이 한두명 잘 기르고 다른 시간에는 자기생활을 찾겠다는 신세대불자 주부들의 욕구는 각종 문화센타 교양강좌의 만원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길음종합복지관을 비롯, BBS불교문화센타, 불교전통문화원등 20여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각종 교양, 취미강좌가 열리는 이곳에는 불자주부들의 '배우려는 열기'로 뜨겁다.

길음종합복지관 2층 직업훈련실 흠패선강좌반. "뜨르르륵 뜨르르륵" 옆네대의 재봉틀 앞에 앉은 주부들의 손놀림이 민첩하다. 오늘은 천조각과 레이스를 이용해 소품꽃이를 만드는 날이다.



◇길음종합복지관에 개설된 흠패선 강좌반은 연꽃등의 불교문양을 개발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

"제손으로 직접 집안장식을 해보고 싶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흠패선강좌반 불자주부 김수자씨는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만들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불교문화센타 화요일 서예반은 30명 정원에 31명이 수강, 강의실이 만원이다. 특히 수강생 31명 모두가 불자여서 매주 모두가 함께 합장, 삼배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강의를 시작한다. 은은한 묵향내 속에 한자 한자 옮겨가며 자신의 마음을 글씨로 그려내는 수행의 시간이다. 같은시간 3층 공개홀에서는 1백여명이 넘는 불자주부들이 함께 입을 맞춰 목청높여 부르는 노래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예전에는 시간 많은 중년, 노년층이 많았는데 요사이는 30대 주부가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알고 배워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려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강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미시족의 출현등 사회적 영향속에서 불자주부들의 의식 또한 달라졌다.

스스로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하고싶은 일을 골라 각종 교양강좌에서 열심히 배운다.

실제로 요즘 가정생활은 주부가 가만히 집에만 있어서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쪼개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신세대불자들의 에너지는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살찌우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주 관	강 좌	연 락 처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 흠패선 · 한복그림 · 소규모 꽃집 운영반	02) 985-0161
불교문화센터	· 불교문화재 교실 · 불화그리기 · 서예 · 수지침 · 건강기공 · 만화 그리기 · 꽃꽂이 · 노래부르기교실 · 우리가락 민요배우기	02)703-0108
대통불교예술대학	· 주부를 위한 「가야금·관소리」 강좌	02)725-7527
불교전통문화원	· 다도부 · 사군자부 · 문인화부	02)732-2068
경주신라문화원	· 사진강좌 · 꽃꽂이 강좌	0561)771-1950
광주불교교육원	· 불교문화 대강좌	062)228-9098
부산불교교육원	· 불교입문자 교육	051)466-4080

인터뷰

"깨어있는 불자로 강단에 서고파"

「불교문화…」 수강생 황부경 주부



"강좌를 통해 자신을 계발하고 경전공부 독서토론과 같은 모임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폭넓은 포교가 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신세대불자 주부들의 특징이자 역할입니다."

불교 교양강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신세대 불자주부 황부경씨의 말이다. 젊은 불자주부들이 각종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깨어있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녀는 신앙생활도 남들보다 적극적이다.

정기적으로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 나가 신심을 닦고, 중앙일보문화센타에서 '불교문화의 숨결' 강좌도 열심히 배우는 중이다. 또 지난해에는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생활인을 위한 여름수련대회에 참가해 신세대불자 주부로서 단단한 불심을 가꾸기도 했다.

"제 인생 최대의 목표는 남편을 불자로 이끄는 것입니다." 7개월된 딸 지현이가 조금더 자라면 아이와 함께 절에 나갈 예정이라는 그녀는 불교적인 자연스런 가정 분위기속에서 남편도 자연히 불자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홍익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 공부중에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중단한 학업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라는 황부경씨는 먼 미래에 '강단에 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 야무진 신세대 불자 주부다. 〈은〉

봉은사 무료 결혼식

봉은사(주지 무상)결혼상담소는 11일 대웅전에서 제2회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보우제 행사 일환으로 열린 이날 결혼식에서 그동안 식을 올리지 못한 4쌍의 부부가 혼례식을 올렸다.봉은사 결혼상담소는 지난해 13쌍의 부부를 위해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하는등 혼인신고는 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의 결혼식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제 1회 효도사찰 순례 조계사 자모회 송광사서

조계사 어린이 자모회(회장 안만행화)는 조계사 노보살과 자모회·신도회 임원진 부모들을 초청, 제1회 효도사찰순례를 23일 전주 송광사와 진안 마이산 일대에서 갖는다.

자모회가 창립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효도사찰순례는 평소 조계사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노보살과 임원진 부모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안만행화 회장은 효도사찰순례에 앞서 "어른들을 모시고 사찰을 참배함으로써 효심과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효도 사찰순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여불회, 부처님 점안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지난 8일 부산 동래구 연산 2동의 사무처 법당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왕선자 회장은 이날 점안식에서 "서로가 협조하고 불심을 돈독히 하며 애어(愛語)로써 상대의 허물도 감싸줄수 있는 도반이 되자."고 말했다.

길음복지관 강좌 신설

길음종합 사회복지관은 가을맞이 강좌로 한지로 배우는 우리의 멋, 메이크업, 양재, 흠패선, 생활꽃꽂이등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설되는 강좌들은 24, 28일 개강한다.

한편 길음복지관은 일반인을 위한 국어, 산수과목을 지도할 자원봉사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수업은 월, 수, 금 오후 2시. 문의 02)985-0161

관음사 합창단 창단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 합창단 창단법회가 지난 23일 관음사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이두스님은 법문을 통해 "음성공양으로 불음을 전파하고 불법을 전달하는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에 이어 찬불가 발표와 송춘희법사의 공연이 펼쳐졌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오직
참음으로서
미움은 쉰다

이 향 원



공 고

11월7일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 종회의원의 선거일 입니다

1. 불기 2538(1994)년 11월 7일(음력 10월 5일 월요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제1대 교구종회의원을 뽑는 선거일 입니다.

2.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또는 사미로서 승랍 7년 이상인 종단 재적의 비구는 그 재적교구에서 중앙종회와 교구종회 직선의원 선출권이 있습니다. 비록 그 교구에 재직은 안되어 있지만 재직(본말사 주지, 본말사 암자 감원)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교구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승이 재직본사와 다른 현 거주지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구본사에 비치된 소정의 선고서(주민등록초본 2통포함)를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해당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앙종회 직선의원 수는 각 교구본사당 2명씩 입니다. 다만 해인사(3명)와 조계사(4명)는 그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24개교구본사에서 직선으로 뽑는 중앙종회의원 수는 51명이 됩니다.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10명은 비구니계에서 추천을 받아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직능대표는 10개 분야 20명 입니다. 고로 중앙종회의원 수는 총 81명이 됩니다.

직능대표는 11월 8일 오후 3시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개혁회의의 의장단 3인, 상임위원회 의장단 2인, 법제위원장, 법제위원회 각 분과위원장 7인 초심호계원장, 재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장, 종법체계정특별위원회 대표 1인으로 구성합니다.

4. 각 교구본사에서는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의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각 교구본사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비서류(호적등본 2부, 수행이력서 1부, 반명함판사진 5매)와 함께 교구본사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승랍15년 이상(79년도 이전 79년 포함—승적취득자), 연령 35세 이상(59년도 이전 59년 포함 출생)의 종단재적승이면 재적본사에 상관없이 어느 교구에서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구종회의원은 승랍10년이상 84년도 이전 84년포함 승적취득자), 연령 30세 이상(64년도 이전 64년포함 출생)의 교구재적승과 1년 이상(주민등록상) 거주승은 그 교구에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종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1)총무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주지(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보리암, 내장사)
2)본종 승니의 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미입적자
3)제적의 징계를 받은자
4)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자
5)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6)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자
7)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8)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관리인 및 그 운영권자
9)면직의 징계로 인하여 해임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10)기타 종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선 교구종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1)위 5의 2)3)4)5)6)7)8)9)10)항에 해당하는가
2)본사 재직승이 아닌자 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7. 중앙선관위는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검토합니다. 각 교구본사에서는 본사재적승을 바탕으로 재적승과 신고한 거주승 모두를 포함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10월 23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토를 통해 이중등재는 없는지, 서류상 하자는 없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승려는 어떤 경우에도 한 교구에서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선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교구를 옮겨다니며 투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전교구에 걸쳐 한 번의 기재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선거인명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당본사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는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 됩니다.

8.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9. 11월 7일 선거인은 승려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과 도장을 가지고 각교구 본사내의 투표소에 오셔서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입후보자가 명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입니다.

10. 11월 7일 투표가 완료된 즉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개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기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둘 수 있습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합니다.

11. 각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득표가 같아서 당선임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승랍이 높은 순으로, 승랍이 같으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당선임으로 결정합니다. 당선이 결정된 경우 중앙종회의원은 전국사찰에, 교구종회의원은 교구의 각사찰에 공고하며, 당선인에게는 당선증과 함께 당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2. 기타 연락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02)732—6364, 732—6365 (팩스)732—6366

* 선거일정 공고(불기 2538년 10월 15일자)와 광고 내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 지하스님의 등재는 사무착오로 생긴 오기였음을 열려드립니다. 또한 입후보자 등록서류 중에서 호적초본 1부는 호적등본 2부로 변경되었음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불기 2538(199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호

'개혁·미래' 불서에 관심집중

예리한 현실비판 속 변화요구 수용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불교와 불교인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책들에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개혁바람이 불서출판가에도 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땅의 쇠북소리〉〈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 종교〉〈오늘의 사회문제, 그 불교적 대응〉은 오늘의 불교현실과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비판 또는 일종의 불교미래학으로도 읽혀진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전환기의 한국불교〉〈돌아앉은 부처〉로 불자들에게 낯익은 공종원씨의 세번째 칼럼집인 〈이땅의 쇠북소리〉(불지사)는 불교의 현재 모습, 불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 불교인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 개혁을 촉구하는 불서들은 미래사회에 대응할 불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교미래학으로 읽힌다.

공종원씨가 보는 한국불교의 모습은 종파분열과 실천이 결여된 불교, 반복되는 조계종 분규이다. 또 불교인 가운데 38.9%가 50대 이상이라는 91년 사회통계조사를 제시하며 청소년포교의 부진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15면에 걸쳐 고질적인 조계종 분규와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3.29 조계사사태를 보며 "불교개혁에 앞서, 지도적 승려들이 권력과 재물과 명예욕으로 해서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부처님의 정법을 흐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며 '비극'을 넘어서는 승려들의 참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모든 것이 승가에만 돌려질 문제는 아니다. 해결은 불교인 모두의 몫임을 지적한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성심을 다하여 행할 때,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삶을 통해 선업을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불교인들 스스로 자신의 신앙행태를 되돌아보는 일에서 변화는 비롯된다는 점을 알게운다.

아울러 불교를 위한 기업을 일으켜 그 수익금으로 일본불교전도협회를 창립해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누마다(沼田惠範)씨, 현대 일본교육의 지표를 제공한 백제승려 최장(最澄), 그리고 강원도 명주 태백산맥 기슭에서 직접 생산불교와 생산도량을 알구는 명진스님의 실천하는 신행속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 종교〉(민음사)에서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는 미래사회를 문명사적 전환점이라고 내다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즉 이념의 다원성이라는 개념을 도입, 21세기에는 정신적으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나아가 혼란과 불안감의 시기일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각종교는 사상의 재정립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길교수는 종교간의 배타성 극복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미래사회에 대한 종교의 책임은 특정종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것이며, 따라서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당부로 받아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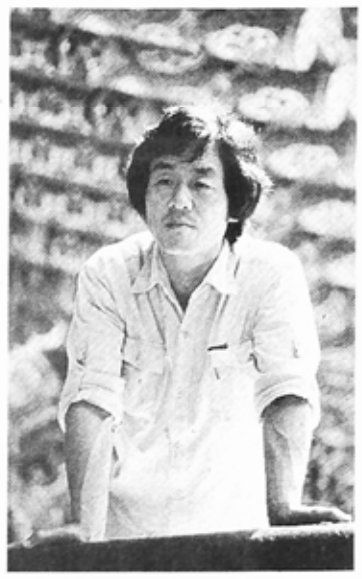
교수불자연합회의 다섯번째 논문집인 〈오늘의 사회문제, 그 불교적 대응〉은 오늘의 우리사회 문제를 범죄와 환경파괴, 가치관의 혼돈으로 분류하고 전공자들의 논문으로 해답을 찾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서 불교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서울대 심재룡교수(철학)의 〈부처님이 올수 없는 땅〉도 꾸준히 내일의 지평을 바라보는 불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불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100선

무문혜개의 **무 문 관**

손가락 저쪽의 달을 보게한 책



한 승 원 〈소설가〉

이념 싸움이 한창 치열하게 벌어진 그 무렵에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때의 각박한 속에서 나는 심신이 쇠약해 있었다. 육체는 병들고 마음에는 불안과 불만족과 울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런 나에게 불심으로 종을 삼고 무문으로 법문을 삼아야 한다는 이 책은 홈통한 약재 구실을 하였다.

이 책은 결국 내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문 없는 문〉이란 어떤 문인가. 처음 그 애매모호한 그 문이란 것은 내 의식을 아득하게 하였다.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어떤 조사의 말에 의하면 이러이러하고, 어떤 책에 씌어 있는 대로 한다면 요러조러하다. 그러므로 이러저러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앞에 흔히 있는 문이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아픈 삶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그 문을 거부하고 있었다.

너는 자본주의자이냐 사회주의자이냐, 신쪽이냐 악마쪽이냐, 선쪽이냐 악쪽이냐, 기독교의 여호와를 믿느냐,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느냐, 노동자편에 서 있느냐, 사용자편에 서 있느냐 · · · . 그때 내 주위의 사람들은 자꾸 어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곤 했다. 그 어느쪽도 아니라고 하면 회색분자라고 따돌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공안48칙 거듭읽고 선 세계 어렴풋 체득

왜 여호와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석가모니쪽으로 나아가려 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원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 바다나 강변에 나가도 파도만 볼 뿐 물을 보지 못한다.

절이나 교회는 무엇인가. 석가모니나 예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달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흔미한 역사와 사회와 나의 눈뜨지 못한 미망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고 헤매었다. 한데 그 이원적인 대립 갈등의 틈 속에서 일원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파도 뒤에 감추어져 있는 물을 볼 수 있게 하고 손가락 저쪽의 달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이었다.

나는 이 책의 48칙을 읽고 또 읽었다. 알듯 말듯한 그것을 노루벼 삼년 고와 먹듯이 두었다가 읽고 또 두었다가 읽었다. 어느날 나는 그 48칙들이 모두 공통된 분모를 가진 것임을 알아차렸다.

〈오탐개한테는 왜 수염이 없느냐〉〈차나 한 잔 하십시다〉〈개한테 불성이 없다고 한 것〉〈부처님은 똥치는 막대기이다〉 · · · .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연스러움은 차별심이 아닌 평등심의 삶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눈치챘고, 선이라는 것도 그것과 멀지 않은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체득하였다.

이후로 나는 늘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면서 사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곤 하는데 그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된다.

※(무문관)의 원제는 〈선종무문관〉으로 송나라 무문에게(慧開)가 공안 48칙을 뽑고 각각 염제(垂提, 옛사람의 말을 자기의 소견으로 해석하고 비판함) 와 송을 붙인 선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희익씨가 풀어서 소개했다(경서원 간행).

새로 나온 책

▲불교사 100장면 (임혜봉 지음) = 석가 탄생에서 최근의 조계종 개혁까지의 시기를 '제1결집과 경전의 집대성' '성철스님 입적' 등 1백 주제로 분류하고, 여기에 관련사진 1백장을 덧붙여 불교의 기원과 중국전파, 한국에서의 불교 전개를 다루고 있다. 주요 사상의 형성과 사건별로 주제를 선정해 2천5백년의 불교사는 물론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까지 현대불교사의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람기획,7천원.

▲대흥사 (목정배 외 지음) = '빛깔있는 책들'의 여섯번째 사찰시리즈로 대흥사의 역사와 유물 유적등의 불교문화를 원색사진을 곁들여 소개했다. 문화, 역사기행 및 성지순례를 위한 좋은 길잡이 구실을 한다. 대원사,3천5백원.

▲인과이야기 (임원용 엮음) = 여러 경전 속에서 나타나는 설화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가려뽑아 엮은 불교설화집. 50편의 설화를 '인연의 장' '윤회의 장' '지혜의 장'으로 나눴으며, 초심자라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엮었다. 여래,4천5백원.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 (정의행 지음) = 이땅에 불교를 공식적으로 처음 전한 순도스님으로부터 근세의 만해스님에 이르기까지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80여명의 불교인물을 중심으로 엮은 한국불교사. 저자는 '진정 민중의 복리와 역사발전에 어떤 사람이 이바지했는가'가 인물평가의 기준임을 밝히고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발굴과 오랜 세월 왜곡된 부분도 바로잡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밀알,7천6백원.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지음) = 대소승의 중요경전인 아함 반야 법화 등 삼부경을 논리정연하게 연결시켜 불교를 대소승으로 분리하지 않고 근본교설을 통합 서술한 고 고익진 박사의 불교학개론서. 이 책에서 저자는 '불교공부에는 무엇보다 경전에 의지해야 할 것'이라며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새터,7천원.



▲대지관좌선법 (천태지자 지음) = 선학의 2대 주류인 달마선과 지관선 가운데 지관선의 요체인 천태지자 대사의 '대선지관법'을 우리말 주석을 붙여 쉽게 풀어 쓴 선수행서. 주석자는 이 책을 통해 달마선에 편향된 한국불교 선학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주사,8천원.

▲미륵성지를 찾아서 (정만영 엮음) = 지난 92년 〈관음성지를 찾아서〉에 이어 저자가 충남 관촉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륵성지 8곳을 순례하며 그곳에 얽힌 설화와 영험 등의 자료를 기행형식으로 쓴 일종의 신앙안내서. 이 책에서는 주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엮었으며, 부록으로 관촉사 사적명을 실었다. 우리출판사,5천원.

▲이야기 한국불교사1 (김현준 지음) =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쓰여진다. 오늘 이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좌표를 찾고자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한국불교사〉도 이러한 요구가 낳은 산물이다.

기왕에 나온 한국불교사는 여럿 있으나 이 책은 다른 위치에 놓인다. 이유는 저자의 한국불교사를 보는 관점이 철저히 신앙적이라는 것이다. 즉,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고려사〉가 고려불교의 업적만을 기록함으로써 형식불교로 전락한 것이며,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불교를 억압없이 핍박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불교로 비춰지게 된 것이라고 그 원인을 들춰낸다. 모두 3권으로 기획된 〈이야기 한국불교사〉 가운데 1권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기의 불교를 다루고 있다. 효림,6천원.

이야기 한국불교사 I



▲부처님 땅1 (이정범 외 지음) =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해주는 어린이불서. 6~7세 어린이용으로 꾸몄으며, 유치원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1권에서는 목탁과 염주 풍경 등 불구에 깃든 불교의 가르침을 동화와 그림을 곁들여 엮었다. 불지사,4천원.

불자들의 목숨을 건 구도정진과 탑법수호의 정신에 의지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불교사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왜 고려불교는 기복불교이며 의례불교인가. 또 조선의 불교가 어찌 생명을 잃은 허무의 불교 분인가고 되묻는다.

이 주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예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도(道)	김정빈	글수레
2	무(無)	김정빈편	글수레
3	알기쉬운 불교	불교방송 편성제작국	불교방송출판부
4	명찰순례(2)	최완수	대원사
5	흔자살기엔 너무 슬슬한 세상	환청원	책 만드는 집
6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7	부처님 땅 1	이정범 외	불지사
8	불교상식백과(하)	홍사성 편	불교시대사
9	불교사 100장면	임혜봉	가람기획
10	100문 100답	정승석	대원정사

출판 단신

무비스님 완역 화엄경 예약판매, 민족사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무비스님 완역관한 화엄경을 예약판매한다. 80권본 화엄경의 원문도 함께 수록해 번역문과의 참조 편리를 도모했으며, 경전의 주요어휘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 화엄경소사전도 덧붙여 별권으로 간행했다. 민족사판 화엄경은 전40품의 완역으로 무비스님이 10여년에 걸쳐 번역을 마친 것이다. 전12권 10만원으로 10월 30일까지 예약을 받는다. (02)732-2403.4

'빛깔있는 책' 문화대상

서울정도 6백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94 서울도서상품전' 시민공모에서 도서출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가운데 서울에 관한 도서 10종이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도서는 〈한국의 궁전〉〈창덕궁〉〈창경궁〉〈비원〉〈종묘와 사직〉〈덕수궁〉〈북한산성〉〈한강〉〈내가 자란 서울〉 등이다.

반야심경약소 보물지정

문화체육부는 지난 17일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를 보물 제1211호로 지정했다. 이 책은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로 송나라 휘종(徽宗)가 법장의 반야심경약소에 자신의 현정기를 붙인 것이다. 불교문화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체부장관상 수상 이규택 경서원대표

불서출판 경서원 이규택대표가 94년도 출판부문 공로자로 선정돼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책의 날'인 지난 11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출판문화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저,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 1,2
김무득 주석, 각권 8,000원

능엄경연구입문
김진열 저, 15,000원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 저, 5,000원

돈오요문
대주혜해 저, 혜원 역, 5,000원

미륵성전
이종익 저, 3,500원

백교회통
이능화 저, 4,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720-9372 · 3 Fax (02)723-0646

산천 경계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도 부처님의 참뜻은 하나더라.

현오스님과 함께 떠나는
미얀마 72일,
위빠사나 수행기



남방불교 수행 제일의 나라 미얀마.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그곳에서 철저한 계율과 경전에
의거한 수행방법을 공부하고
돌아온 현오스님이
한국불교에 띄우는 메시지.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에 충실하자!
수행은 결코 승려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심만 있으면 누구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 수 있다!

신국판
224쪽
4,300원

이 책의 지은이 현오스님은 '75년 오대산 월정사에 입산, 최찬 노사로부터 득도한 후, 제방 선원과 토굴 생활을 거쳐 '93년 미얀마의 마하시 수도원에서 위빠사나를 수행했다. 현재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토굴에서 정진중이시다.

· 펴낸곳: 다모아 기획 · 출판 사업부
· 주문처: 도서출판 논장
서울시 마포구 양원동
(02) 332 - 8369

불심시심 〈1〉

두끝을 버려라

茫茫堪輿絕中邊 망망한 천지 중간 끝 어디 있나
幅裂豆分豈怨天 찢어 놓고 갈라 놓고 하늘을 원망해
透網錦鱗還滯水 그물 빠져나간 고기 다시 물에 막히고
鵬搏萬里一搖肩 만리를 나는 붕새도 어깨 한 번 쳐야 해

이 게송은 조선조 인오선사의 선시이다. 인오선사의 호는 청매이다. 시의 내용은 4조가 3조에게 "해탈의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하니, 3조가 "너를 결박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하니 곧 깨달았다는 내용을 읊은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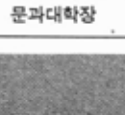
망망한 천지에서 어디가 중앙이고 어디가 끝이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늘이니 땅이니 그 중간이 세간이니 하여 스스로 얽매이는 것이다. 시선이 끝나는 어느 지점을 놓고 그것이 끝이라 하면, 시선을 옮겼을 때는 또 어찌해야 되는가. 마치 한쪽의 천을 잘라 놓고 중앙이니 양변이니 하는 것이 아니냐 좀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공인데.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갔다. 해서 그 고기가 자유를 얻은 것인가. 물이 다시 물고기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면 이 고기는 항시 얽매여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물에 있을 때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물에 갇혀 있더라도 그물이라는 이물질을 느끼지 않으면 그곳은 없는 것이다.

사람살이에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 곧 생명의 지속이 중단되고 말 것이며, 이 생명 호흡의 중단은 공기가 없으면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공기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음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논리이지 실제의 생활에 있어서는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삶이요, 또한 그러므로서 삶이 편안하다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물고기 꼴이 되니 그물에 갇하지 않아도 그물에 갇힌 것으로 느껴야 하는 물고기와 같다. 위에서 말한 "너를 결박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함이 깨달음의 길잡이가 됨을 알겠다.

이 종 찬



△동국대국문과졸업 △한양대문학박사 △「조선고승한시선」「한국불교시문학사론」등 다수 △수상집「없음의 여유」등 △현, 동국대 문과대학장

성보 문화재 "있던 자리로"

국립중앙 박물관 외부 불교유물 철거 대책없어

국보등 12점, 원위치 반환후 철저 관리 마땅



◇ 국립중앙박물관 철거와 관련 외곽의 성보유물을 불교계로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과 관련 박물관 외부에 전시된 불교유물들은 어디로 옮겨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내년 8월 15일까지 철거할 방침이나, 박물관측은 아직 철거의 시기나 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박물관 철거작업은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엔 시작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관련, 박물관 외부에 전시된 불교유물등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미리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주장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동쪽 광장 지하 15M에 8만여점의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가 있고, 지상에서 사방 1백M 이내에 광화문, 보제존자 사리탑(보물358호), 남계원 7층석탑(국보100호), 경천사지석탑, 안흥사 5층석탑등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12점의 귀중한 성보문화재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 유물들에 대한 완벽한 보호장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이 철거될 경우 진동과 분진에 의한 훼손이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측이 박물관의 철거에 앞서 이들 유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교계에서는 폐사지에서 옮겨온 성보유물들을 이번 기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보문화재는 제자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국가차원에서 박물관이 관리해 오던 유물들을 새로 신축되는 용산시민공원 박물관에 그대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의견은 폐사지로 원상복귀시킬 경우에 대두되는 관리·보존의 문제등이 철저히 강구되지 않는 한 성보에 대한 훼손과 유실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한 교계의 반발도 큰 것이 사실이다.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경우에도 문화재관리국등 담당기관이 문화재로서의 관리는 여전히 치밀하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인근의 사찰이나 주변 신행단체들이 이들 성보문화재들을 관리케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이들 성보는 조계종등 관련종단이 국가로부터 인수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즉 종단이 이들 성보를 인수받아 불교박물관을 건립, 불교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일반에 공개함으로서 불교문화재로서의 면모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에 대한 종단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다. 또 불교문화재·유물등을 전문으로 탐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일단 정부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자세이지만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란것에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무소음·무진동·무분진」의 3대원칙을 제시, 전시유물에 한치의 훼손없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시박물관으로 쓰여질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 현재에도 주위에 있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전 흥법사염거 화상부도, 보리사 대경대사 탑비등에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훼손의 우려와 아쉬움을 사고 있다. (도필선 기자)



◇ 김희자씨의 「달뒤에 숨은 님의…」

사유세계의 「실체」탐구

김희자 초대전, 독특한 화법 눈길

20일부터 수목화랑

유심론에 심취, 사유의 세계를 자유로운 곡선미로 표현한 김희자씨의 작품전이 20일부터 청담동 수목화랑(518-5884)에서 열리고 있다.

「실체와 비실체」를 주제로 한 이번 김희자 초대전에는 「공허를 보는 눈」「집착으로부터의 자유」등 독특한 작품들이 내걸렸다. 김희자씨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명한 색상과 곡선화된 캠버스의 형태이다.

사람살이에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 곧 생명의 지속이 중단되고 말 것이며, 이 생명 호흡의 중단은 공기가 없으면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공기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음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논리이지 실제의 생활에 있어서는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삶이요, 또한 그러므로서 삶이 편안하다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물고기 꼴이 되니 그물에 갇하지 않아도 그물에 갇힌 것으로 느껴야 하는 물고기와 같다. 위에서 말한 "너를 결박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함이 깨달음의 길잡이가 됨을 알겠다.

그리고 끝없는 사유세계의 탐구의식 표현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존의 캠버스 틀을 거부한 작품들은 내용의 전달을 돕고 있으며 청색을 위주로 한 색감의 선명성 속에 은근히 내비치는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는이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김희자씨는 성신여대와 서울대에서 관화와 회화를 전공하고 뉴욕에서 세번의 초대전을 가졌다. 서울 전시는 이번이 네번째로 11월 3일까지 계속된다.

◇ 불회사 인근에서 발견된 고려대 석조 나한상들.

석재나한상 무더기 발굴

광주박물관, 불회사 부근서

전남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 250여미터 부근에서 고려후기부터 조선중기에 걸쳐 제작된 석재나한상련(石材羅漢像群) 수백여점이 집중 출토되어 고고학계를 비롯, 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발굴은 현지인의 제보로 국립광주박물관(관장·이건무)에 의해 9월7일부터 26일까지 문화재관리국의 긴급발굴 예산지원과 나주군의 협조로 실시되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석재나한상련들이 한 장소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점과 그 양으로 보아 오백나한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완형(完形)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회화나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고려시대의 석조나한상이 이처럼 대량으로 출토된 예는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오백나한일 가능성이 높아 고려 및 조선전기 나한상의 도상(圖像)적 특징과 양식을 규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용현 작 「금니금강경」 대상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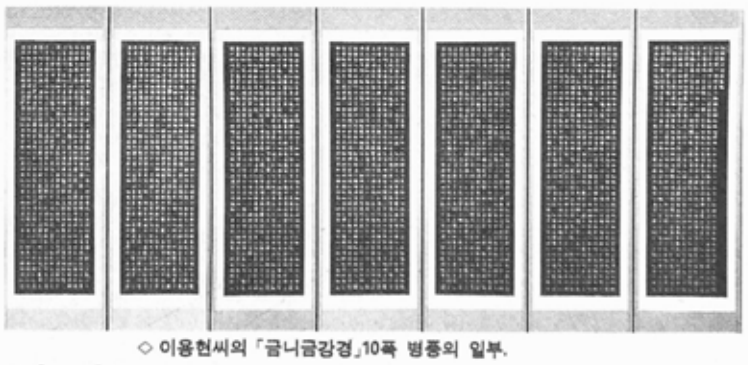
제15회 불미전 입상자발표, 금상에 한기늠, 전연호씨

제15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의 대상(종정상)에 이용현씨(58, 전북 전주시 단산동)가 선정됐다. 작품은 「금니금강경」. 10폭 병풍으로 제작된 서예작으로 감지에 금분으로 금강경 전문을 썼다.

불교미술대전의 대상에 서예작품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사회부는 지난 15일 제15회 불미전 입상자를 발표, 이번 불미전에서는 대상 1점, 금상(총무원장 상) 2점, 은상(우수상) 6점, 동상(장려상) 8점, 특선 12점, 입선 79점등 총 108점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각·전통회화등 7개분야에 총 2백50여점이 출품된 이번 불미전에서 금상은 한기늠씨의 조각 「도구1」「도구2」와 전연호씨의 전통회화 「삼장보살도」가 차지했다.



◇ 이용현씨의 「금니금강경」10폭 병풍의 일부.

심사에는 홍윤식(동국대)교수, 황수영(문화재위원)박사, 정영호(교원대 박물관장)박사, 진홍섭(문화재위원)씨, 정주상(국전심사위원)씨, 오경환(동국대)교수와 석정스님(인간문화재·불화), 관조스님(사진작가)등이 참가했다.

홍윤식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이번 불미전은 불교미술의 분야를 확대해 불교미술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일깨워 준 반면 불상과 불화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의 발전을 위한 경각심을 주었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에 입상전에 오른 1백8편의 작품은 24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과 불교회관 1층에서 전시된다.

피카소, 샤갈의 진품 공개

연화사 건립금 마련 「명품전」

영국 연화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영국명품전」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삼성동 롱연코퍼레이션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명품전에는 19세기 빅토리아 왕조때의 본차이나등 2백여점의 자기가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대사(THOMAS HARIS)등이 내놓은 피카소의 자기류, 샤갈의 판화등 진본들은 미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영국 연화사 건립을 추진중인 보윤스님은 "이번 전시가 성공리에 끝나 영국에 한국 사찰을 건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는 현재 태국·일본의 불교가 많이 소개되고 있으나 한국불교의 포교활동은 미진한 상태이다.

동국불교미술인회창립전 내달 2일부터, 26명 출품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김익홍) 창립전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인사동 현원갤러리(723-7771)에서 열린다.

이번 창립전에는 26명의 회원이 불교회화·조각·공예등 신작을 내놓는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동국대학과 인연 있는 미술인들이 지난 5월에 결성한 모임으로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訃 告

佛敎음악 작곡가이며 사찰합창단 지휘자이신 이길상선생께서 佛紀 2538年 (陰9月13日) 10月17日 오전 12시 40분 世緣을 다하여 이대부속병원에서 世壽 55歲로 입적하시어 다음과 같이 영결식을 봉행코자 알려드립니다.

佛紀 2538年 10月17日

■ 영결일시 : 불기 2538년 10월21일(金) 오후1시

■ 영결장소 : 강남 봉은사(547-4255~6)

■ 연 락 처 : 992-8439, 900-4929

증 명 : 탄성(조계종 총무원장)
고 문 : 전대운(경국사 주지), 차동광(도선사 주지), 신무상(봉은사 주지)
장의위원장 : 최영철(작곡가)
부 위 원 장 : 운문스님, 최조응교수, 정부기교수, 변규백, 박재완, 정순자
총 무 : 이규호(진각종 합창단 지휘자)
부 총 무 : 유동열(관음사 합창단 지휘자)
재 무 : 구윤희(성보사 포교원 원장)
총 보 : 김묘주(연꽃합창단 단장)
장 의 위 원 : 정덕스님, 묘심스님, 정진스님 지안스님, 이무영, 안병길, 김희경, 박이제, 서운제, 안순진, 정옥녀, 이영화, 송춘화 오승희, 연정숙 , 문지혜심, 박종대, 손아자, 봉은사합창단 권방아, 금강합창단 정순자, 조계사합창단 엄경자, 진각종합창단 김천대자, 도선사합창단 김정자, 불광사합창단 김유수, 한미음선원합창단 성열, 능인선원합창단 한정자, 국방부원광사합창단 장국향, 관음사합창단 박민자, 대각사합창단 강미자, 수국사합창단 김용옥, 묘각사합창단 윤숙환, 광도사합창단 이순덕, 명법사합창단 진여성, 보리사합창단 이기자, 봉선사합창단 김순임, 본각사합창단 김정숙, 봉원사합창단 박영래, 청룡사합창단 유제군, 보문사합창단 장숙자, 사자암합창단 이은주, 대한불교합창단 최복경, 중앙합창단 정방하, 불교여래원합창단 황성자, 강남포교원합창단 심춘광, 보리정사합창단 김묘주, 상주암합창단 이애자, 용문사합창단 이경희, 영화사합창단 이혜종, 약사사합창단 김영숙 회룡사합창단 명용희, 홍원사합창단 구옥희, 홍륜사합창단 김기철, 성보사포교원합창단 성현숙, 보현정사합창단 유선희(무순)

불교음악인 장의 위원회

방송 단신

BBS, 성철스님 특집 「가야산은 옛처럼 …」등

성철 큰스님 열반 1주기(24일 를 맞아 불교방송은 17일부터 24일까지 다양한 특집방송을 마련했다.

17일부터 7일간 방송된 「다시듣는 백일법문」은 27년 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의 설법을 육성그대로 생생하게 전했다.

24일에는 「가야산은 옛처럼 서있네」를 해인사 백련암에서 일주일에 걸쳐 봉행되는 참회법회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의 현장을 취재 소개하면서 스님의 상좌와 재가불자들의 성철스님에 대한 회고를 들었다.

이어서 조선일보 문화부장 서희건,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은윤, 조선일보 논설위원 공종원씨외 3명의 언론인들이 큰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현실속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논의했다.오후 6시20분부터는 지난 7일 조계사에서 열린 「성철대선사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를 녹음방송했다.

BBS 국악무대 공개방송

불교방송 특집프로그램 「라디오 국악무대」공개방송이 오는 31일 북천창우극장(765-4282)에서 열린다.

부다가야 대 각 사

"운영권 불교도에 넘겨달라"

운영법 힌두측에 유리·법개정 마땅

해외통신

월우/부다가야고려사 주지

최근 인도에서는 부다가야 대각사의 운영권을 불교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처님의 성도지인 부다가야에 서기 2백60년에 들른 아쇼카왕이 참배한 이래 중요한 성지가 된 이곳은 지금도 순례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대각사 건물(탑)은 서기 2세기경에 지어졌으며 그안에 모셔진 불상은 서기 3백80년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각사는 현장법사가 서기 6백년에 참배한 바 있다. 그는 "보드가야 대탑은 높이가 백육칠십척이며 그 주위에 이십일좌의 탑이 있다"고 기록했다.

면면히 불교의 성지로 순례객들의 신앙심을 증장시키는 부다가야의 대각사는 인도 지역에서 불교가 쇠퇴되면서 힌두교 사제들이 장악해 오고 있다. 16세기 중엽에 힌두의 손으로 들어간 대각사는 그때부터 비불교 의식마저 집전되는 곳으로 전락했는데 1590년 고세인 사제에서 1861년 춘닝감에 이르기까지는 그 정도가 매우 극심했다.

1875년에는 미얀마의 왕 민단 민이 인도 정부로부터 허물어져 가는 대각사의 보수 허가를 얻어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의 마무리는 인도 정부의 책임아래 이뤄질 수 있었다. 당시 복구된 상태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원 후에도 여전히 대각사는 힌두 사제들이 관리 했다.

최근 일고 있는 대각사 운영권의 불교인 회복운동과 관련 샤사나 라슈미 스님이 「왜 불교도들은 보드가야 대각사 관리를 바꾸려 하는가」라는 글을 발표해 주목 받고 있다.

라슈미 스님은 이글에서 대각사의 역사와 힌두 사제들의 관리상 부도덕성 그리고 다르마팔라의 운영권 반환 요구 사례등을 소개하고 있다. 라슈미 스님의 글에 의하면 다르마팔라는 1891년 대각사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사람으로 그는 힌두 사제들로부터 폭행도 수차례 당해가며 운영권 되찾기 운동을 벌였다. 1906년 힌두사제들은 인근 미얀마절에서 불교승려를 불러 내려는 소송을 제기했고 불교승려들로 대각사은 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 법정싸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도부다가야 대각사. 운영권 되찾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못가득 활짝핀 연꽃은 이교도들의 횡포에 시달려온 대각사의 역사를 아랑곳 하지 않는듯 하다.

인도독립 직후인 1949년 비하르 주정부는 부다가야사원 운영법을 제정했으며 위원은 8명을 두었다. 그중 4명은 힌두 사제이고 4명은 불교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다가야 세무장관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운영법에는 언제나 힌두 사제가 유리하도록 된 특별조항이 있어 불교도의 운영권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

순례객과 여행자의 주머니에 의존해 살고 있는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의 땅이 힌두교도의 손에서 불교도들에게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목탁소리

우물안 벗어난 이타행

이 경 숙
〈취재부 차장〉

불자들의 자비행이 우물안을 벗어나고 있다. 사회봉사나 복지에 타종교보다 소극적이라는 평을 듣던 불교가 국내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가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를 태워 빛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다소 긴 이름의 봉사단체가 있다. 이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저멀리 인도 고아를 돕고 있다. 우리 돈 1만원이면 인도 고아 1명이 한달간 먹고 입고 공부까지 시킬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이홍재거사(불가칠구학회장)가 주선해 조직한 봉사회로 안 입는 옷을 모아 인도인들에게 나눠주고, 보다 근본적인 후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금을 모아 향료 공장까지 세워주었다.

한국불교시민상담실(실장 김재일)은 기근과 질병으로 수만의 아사자를 내고있는 르완다 난민돕기에 나서고 있다.

상담실이 마련한 르완다난민돕기 기금마련 구좌에는 시민상담실 회원뿐 아니라 뜻 있는 불자들의 성금이 꾸준히 답지하고 있다. 이역시 우리 돈 1만원이면 3백여명의 르완다 어린이가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말에 불자들의 동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절실굶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자비의 집(대표 등광)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이들에게 수계법회를 발게 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등 권익 옹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자비의 집은 특히 불교국가인 네팔, 스리랑카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토요일이면 들러 고향처럼 마음놓고 쉴수 있는 곳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다소나마 달래고 있다.

우리의 춥고 배고팠던 시절, 선진국 평화봉사단원들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사람이 적지않을 것이다.

6.25전쟁후 받기만 해왔던 수혜국의 이미지는 일년에 8조원이라는 음식찌꺼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최근까지도 씻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나라를 돕는다는 일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브라질의 가난이 극에 달해 쥐를 잡아먹으며 끼니를 잇는 하층민의 사진이 보도됐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큰 불사마다 빠어있는 '세계평화 인류행복 …' 운운의 거창한 구호는 접어버리자. 작은 것이라도 직접 실천 할 수 있는 일에 불자들이 솔선해야 한다.

가까운 이웃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멀리있는 어려운 이웃까지 돌보는 일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세계일화정신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도 참여불자가 늘기를 기대해 본다.

동체대비 정신구현에 앞장 다짐

정덕일씨, 제주 천사재활원 태고종에 기증

제주도 모슬포 소재 사회복지 법인 천사재활원 제3대 정덕일이사장 취임식 및 지역주민위안법회가 지난 16일 모슬포 대정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서봉 태고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태고종 종단간부 스님 10여명과 제주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박서봉 총무원장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처럼 훌륭한 이사장을 새로 모시게 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천사재활원 가족여러분은 각자 습기몸운 인격을 형성하여 사회의 동량이 되어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정덕일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천사재활원을 인수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재임기간동안 원생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종단설계에 "초석"
18일, 해종특위 활동보고

조계종 개혁회의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 영담)는 지난 18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해종특위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해종특위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해종행위자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58명으로 나타났다.이날보고에서 위원장 영담스님은 "해종특위는 반개혁적 반불교적 반승가적 세력을 엄단 경책케 하고 사람개혁을 통해 미래종단 설계에 초석을 삼는것과 동시에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직기간 동안에 시행된 과행적인 인사처리와 재산의 불법처분 등을 중심적으로 조사 파악 그 책임자를 경책했다."고 말했다.

생명존중 정토사상 실현의지 다져

15회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제15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정토정종본산 지은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류대회에는 한국측에서 박서봉 태고종 학원장은 비롯 1백60여명이 참가했으며 송재운교수(동국대)가 「불교에서 본 생명존중과 공존의식」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일본측에서는 산절(山折)국제일본문화센터 소장이 「일본인의 정토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추기 강공회 실시
진각종, 총인원서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지광)의 진기 48년도 추기 강공회가 지난 18.19일 양일간 총인원에서 실시됐다.

社 告

회귀 · 절판본 재출간 동참안내

불서보급의 공덕, 여시아문이 함께 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희귀,절판본 불교서적류 발굴해 재출간 작업을 펼칩니다. 가치 있는 불서, 그러나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불자들을 위해 펼치는 불서 재출간 사업에는 희귀본, 절판본 불서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동참할수 있습니다. 불자님의 서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전해져야 할 값진 불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출간 대상 도서: 희귀본이나 절판되어 유통되지 않는 불서
접수기간 : 수시
연락처 :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도서출판 여시아문
〈 문의 : 737-8881 〉

주부 신행담 모집

감동의 신앙체험 독자들과 나눕시다

신행체험담,기행,일기,기도영험담등을 모집합니다. 주부님들이 신행 현장에서 겪은 감동적인 체험들을 보내주시면 16면 주부신행담에 실어드립니다. 원고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낼곳 :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사
주부신행담 담당자 〈 문의 : 722-4162 〉

주부 모니터 모집

정법 포교의 파수꾼이 될 주부님을 모십니다

기사 정보 여론제공 '현대불교의 가정기자'

현대불교를 읽으시면서 느끼는 소감이나 주위의 의견 그리고 각종 정보와 여론을 수집해 보내주실 주부모니터에 주부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격 :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하신 주부님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통(명함판사진 2매),주민등록 초본 1통
선발 : 서류전형후 개별통지
마감 : 1994년 11월 30일
보내실곳 :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주부모니터 담당자 〈 문의 : 722-4162 〉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효부에게 온정의 손길을"

이건자씨 돕기 김기원교수등 나서

보기드문 효부로 알려진 이건자보살(경남 진주시 신안동 거주)을 돕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심이 돈독한 이건자보살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 80세 노부모를 봉양하고 4남매를 키우고자 온갖 궂은 일을 하다가 병세가 악화돼 지난달 20일 경상대 병원에 입원, 간진결과 심장관막결손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어렵게 양심장관막을 인공심장으로 바꾸었으나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드는 많은 경비를 감당할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어 교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로심장회등을 통해 자비행을 펼쳐온 진주산업대 김기원교수는 효부 이건자씨의 수술비마련을 위해 교계가 앞장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0591)758-6611〉

성태용 교수특강
24일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 명호근)는 동문의 날 모임을24일 오후 7시 삼일선원법당에서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성태용 건국대교수의 '한국불교의 개혁 그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한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기수별 지회별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 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방지 매트

현대인의 질병 큰 원인은 수맥의氣에서 오는 것을 아십니까
옛 우리 선조들은 집터나 묘터를 고를때 지관을 불러 수맥을 살펴 명당을 찾았읍니다.

• 수맥(水脈)의 氣란?
지하에 흐르는 중력수(重力水)를 말하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광물질이 모여 자기량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초고층상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엄청난 피해를 줌.



◎수맥(水脈)의 氣를 방지하지 않으면
• 누워잘 경우 혈압이 높은 분들은 90%이상 중풍이 옴
• 활동할때는 괜찮고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아프고 불면증이 옴
• 항상 몸이 무겁고 두통 신경성 불쾌감 신경통 또는 몸이 붓습니다.
• 진단결과 병명은 나타나지 않고 몸은 항상 괴로우며 의욕이 상실됨
• 임산부는 태아에 나쁜 영향과 수험생은 정신집중이 안됨

▤제품 규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
규격 Double 140×200㎝
Single 100×200㎝
가격 D W248,000(VAT별도)
S W218,000(VAT별도)

수맥방지 - 알파매트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자석요나 돌침대와는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지구내(地球內)에 혈관처럼 뻗어 있는 중력수맥(重力水脈)에서 발생하는 지자력(地磁力)과 지전류(地電流)를 차단하여 줌으로해서 병(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인체(人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敏永實業
서울(02)208-7974~5
부산(051)317-5155



VIP GOLD매트 W850,000
Gold 카펫 W765,000

발명특허원 제2273호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전 3-7-5663
遠赤外線 線狀發熱體使用

전

침구문화—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수맥의 피해와 현대문명병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선장(음이온)+온열+전이효과

1. 혈액증진(동맥경화, 중풍, 고혈압, 저혈압, 관절염)
2. 근육 이완(팔, 다리, 어깨허리)
3. 동통 완화(신경통, 요통, 관절통, 견비통, 근육통)

드디어 제1의학(약물요법)과 제2의(물리요법)에 이어 선장온열, 전기요법의 등장으로

• 잠을 많이 자고나도 피곤이 계속 남는 분
• 신경이 곤두서고 잠이 오지 않아 괴로우신 분
• 견통, 목통, 요통,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류마티스 고혈압, 동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
• 월 1호 이상 안마를 받아야 하는 분
• 수험생이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
• 무기력하고 정력이 약한 분
• 앉아있는 상태로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

'방생'이 달라지고 있다

물고기·새 풀어주기 현저히 줄어

인간방생·환경보호 인식확산

임연태 기자

방생이 달라지고 있다.

사찰, 신행단체들이 어류나 조류를 사다가 놓아주던 과거의 방생이 이제 「생명공양」이라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이 방생의 의미와 실천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동체대비 정신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편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생명존엄에 대한 인식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과거의 방생은 어류나 조류를 구입해 놓아주며 가족이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데 그쳐 기복성의 조장과 자연 생태계 파괴라는 측면에서 문제시 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입 어류를 무분별하게 방생함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것은 불교계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어류·조류를 놓아주는 소극적 의미의 방생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게 각종단의 분석이다. 이에는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인간불사」「생명공양」에 대한 교계 내부의 자각의 소리가 커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강남 봉은사, 부천 석왕사등 사찰에서는 우란분절이나 성도절, 부처님 오신날등 불교의 명절날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쳐 「기쁨 나누기」와 「포교의 마당넓히기」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이같은 사찰들의 행사를 통한 인간방생의 형태는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생명공양본부」「나눔의 집」「자비의 집」등의 활동도 인간방생의 큰 원력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중요한 역할로 꼽히고 있다. 장기기증의 사례가 교계내에서 점차 확대되고 각종 봉사단체가 창립되어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도 보다 적극적인 방생의 실현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교계에는 자비실천 봉사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들이 1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군부대, 교도소, 병원, 고아원, 양로원 특수장애시설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 종단의 인간생명 존중과 봉사,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방생의 큰의미 실천을 이끌고 있는 종단 차원의 행사는 신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다. 태고종이 금년부터 환경보호를 앞세운 영산대재를 기획한 것과 천태종이 푸른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진각종이 이미 2년전부터 심청정국토청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봉사하는 불교」가 곧 「수행하는 불교」라는 인식의 확산은 생명공양, 인간방생의 현장을 그만큼 넓혀가고 있다.

"방생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형태 변화를 통해 불교가 이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계의 인간방생에 대한 의식의 폭은 매우 넓게 자리잡았습니다."

불자단방인회를 이끌고 있는 진오스님은 과거의 기복적 행사로 그치는 방생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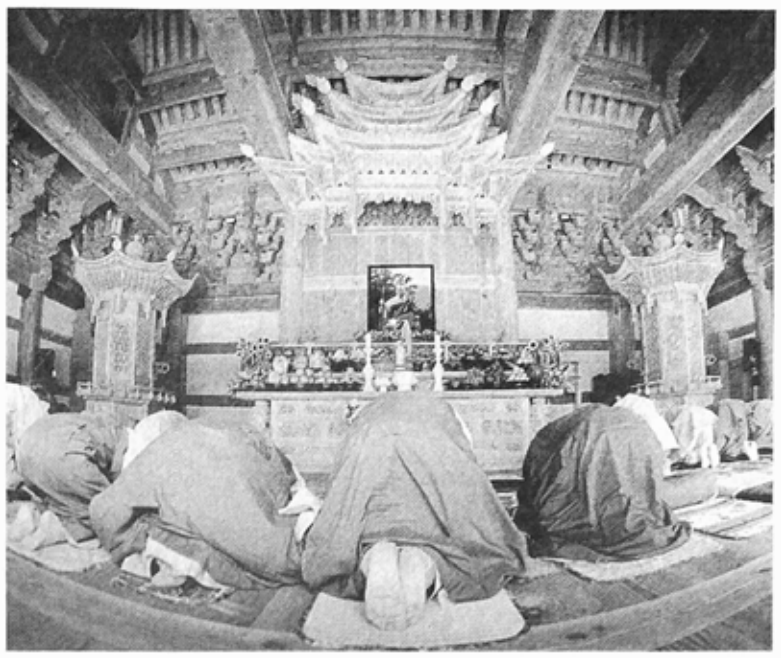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의미에서 「함께 잘 사는 사회구현」으로 전환된 방생의 형태는 불교의 바른 신행구축과 아울러 계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돕기 알뜰장터 다음달 16일, 봉은사

봉은사청년회(회장 손칠원)는 11월16일 봉은사경내에서 근검절약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알뜰장터를 연다.

청년회는 의류 가전제품 도서 어린이용품 등 장터에서 판매할 물건을 접수한다.

문의 02)517-9551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열리고 있는 칠일칠야 참회법회 〈사진=박진우·작가〉

생전의 사자후 여전히 생생

성철스님 1주기, 추모행사 다채

참회법회·일대기 비디오 제작·유품공개 등

24일은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의 열반 1주기다. 합천 해인사에는 추모법회에 앞서 성철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발길이 줄을 잇고있다.

성철스님은 지난해 11월4일 가야산 해인사 퇴설당에서 "...동근 한 수레바퀴는 밝음을 내뿜으며 푸른산에 걸렸도다"란 열반송을 남기고 적멸에 들었다.

큰 빛 성철스님의 입멸은 불자뿐 아니라 국민모두의 슬픔이었다.

스님 열반후 1년. 한국불교는 10년 이상 발전했다는 평이다. 서점가에는 성철스님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렸다. 영결·다비식과 스님의 행장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성철스님 일대기가 홍수를 이뤘다.

스님의 행장과 가르침이 재조명되면서 한국불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것이다.

성철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으면서 불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는다. 성철스님 추모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련문도회는 지난 17일부터 7일간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성철스님 대선사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인원 2천여명이 동참하고 있는 참회법회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란 주제로 백련문도, 재가불자들이 능엄주와 백팔참회기도를 하고있다. 또한 백련문도회는 참회법회의 정신을 펴기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란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있다.

성철스님 일대기가 비디오테이프 5부작으로 제작, 11월경 공개된다. 성철스님 상좌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있는 이 비디오는 제1편 원주스님이 수도자로서의 일상과 자세히 상, 2편 원택스님이 3천배등 성철스님의 가르침, 3편 원영스님이 돈오돈수등 성철스님불교의 핵심, 4편 원융스님이 장좌불와등 선수행, 5편 육성법문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비디오에는 성철스님의 36제자와 혜암,서옹,일타,법전스님등의 성철스님에 대한 증언이 담겨있다.

지난 5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성철스님의 유품들이 일반에 공개됐다. 백련암 원택스님이 공개한 유품들은 성철스님의 친필 도서목록, 묘업스님에게 내린 친필 사미니계첩, 일제시대 순천 송광사 예산 정혜사 능인선원 등에서 받은 안거증, 도선사에서 쓴 서원문등이다. 특히 64년 9월3일 청담스님과 함께 쓴 '서원문'에는 "항상 산문의 가람과 난야에 지주하고 도시촌락의 사원과 속가에 주석치 않겠습니다" 등 3개항의 간절한 서원이 기록돼 있다.

한국화가 김호석씨는 지난 1년동안 성철스님 표준영정 3점을 제작해 이달말 공개한다. 성철스님 영정은 한지와 기름을 먹인 유지에 천연안료로 제작됐다. 〈엽〉

새 스님 3백40명 탄생

조계종 제15회 수계산림 … 비구 167 비구니 173명

조계종 제15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에서 비구 167명 비구니 173명등 총 3백40명의 새 남자가 탄생했다.

이번 단일계단에는 사미 192명 사미니 176명 등 368명이 응시했으나 승가고시와 면접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3백40명이 지난 14일 회향된 수계산림서 구족계를 받았다.

대의원의장에 하영태 현 서울지구 회장, 대의원 부의장에 김은아 현 서울지구 부회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 채성진, 최성식 현감사가 재선됐다.

김규범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서울지구의 중앙조직과의 연계성, 선배에 대한 예우문제, 조직의 활력소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서울불교 청년회, 조계사 청년회 등 종교단체와 여러 봉사단체와 연계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규범회장은 현재 서울지구 상임부회장 외에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상무위원을 맡고 있다.

새회장에 김규범씨 대불청 서울지구

대한불교 청년회 서울지구는 지난 14일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제 1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8대 지구회장에 김규범 현 서울지구 상임부회장을 선출했다.

서울지구 17개 지회 43명과 대의원 의장, 지구 회장, 부회장 2명 등 모두 51명의 투표인단이 참석한 이 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단독출마한 김규범 상임부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조계종 선거업무 시작

27일 후보등록 마감, 11월 7일 종회의원 선출

조계종이 본격적인 선거업무 체제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호)는 지난 18일 총무원 청사 2층에 사무실을 마련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선거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앙·교구종회의원 선거는 10월20일 의원후보등록을 시작해 27일 오후 5시까지 등록을 마치고 31일 선거인 명부열람을 시작으로 11월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최종확정, 11월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선거를 실시해 8일 중앙종회 및 교구종회의원을 확정한다.

총무원장은 11월 1일 공고후 11월 10~12일 후보 등록을 거쳐 14일 구성되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22일 선거를 실시한다. 이날 선출된 총무원장은 24일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위원장 현호스님외 태응 지하 종진 철응 중원 성타 청화 성정스님 등 9인이 선출됐다.

한편 교구선관위원장은 본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맡으며 나머지 교구선관위원 4명은 교구본사주지가 추천, 개혁회의에서 선임한다.

공명선거 감시단 구성

범종추 성명 발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회장 청화, 이하 범종추)는 지난 11일 범종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금의 종단상황과 향후 종단에 대한 범종추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 선거에서의 엄정중립을 선포함과 동시에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종추는 향후 조직강화 및 불교자주화를 통해 불교발전과 승려위상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 불퇴전의 신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불광회 창립 20돌 기념법회

바라밀운동 재다짐, 신행수기 시상도

불광회 창립 20주년 기념 법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오) 보광당에서 봉행됐다.

3천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법주 광덕스님은 기념법어를 통해 "삼세제불의 불모(佛母)인 반야바라밀을 수지, 선양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오늘의 불광을 이룬 모든 바라밀 형제와 불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바라밀 광명총만한 정토건설을 위해 다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1부 기념법요식에 이어 불자연예인 김병조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 축하공연에서는 불광가족들의 장기자랑과 가족합창등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월간 「불광」 20주년 기념 신행수기 공모 당선자 시상식도 함께 진행해 '지장기도 9백일'의 최현숙씨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승련 학인대회

전국승가학인연합(의장·지명)은 이달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제5회 학인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경주 석림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9일 오후 1시 입재해 포살 및 설법대회 승가학인의 밤(승무,바라공연, 장기자랑)이 열리고 30일에는 체육행사를 주축으로 법고경연과 시상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린스카우트' 창단

〈그린스카우트〉가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창단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동아일보사와 맑은물 되찾기 운동연합회가 공동 창설한 그린스카우트 창단식은 이날 청소년대원, 가족회원, 각계 단체회원 등 그린괘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한편 본지를 비롯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5개 불교단체는 지난 10일 그린스카우트에 가입하고 불교계 환경보호에 앞장 설것을 다짐했다.

선국장 1주 추모법회 '선원빈 기자상' 제정

故 선원빈 국장 서거 1주기 추모법회가 지난17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유족및 친지, 교계 언론 관계자등 1백여명의 추모속에 엄숙히 봉행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가 주최한 이번 추모법회는 생전의 반야심경봉독 고인약력소개 비디오 시청 헌화및 분향 추모사 추모시 및 추모의 글 낭독 법어 정근 및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기협은 이날 법회에서 22년간 불교언론에 종사하며 정론포교에 몸바쳐 온 고인의 뜻을 받들어 「선원빈 기자상」을 제정, 내년부터 시상키로 했다.

이길상씨 입적



불교음악 작곡가 이며 지휘자인 이길상씨가 지난 17일 낮 12시 40분 이대부속병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55세. 장례식은 불교음악인 장의위원회 주관으로 21일 오후 1시 강남 봉은사에서 엄수됐다.

이길상씨는 성균관대와 서울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33년간 종교음악을 연구했다.

※지난 15일자 창간호중 일부 신문지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로 배달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수미산 여행사는 열린 세상을 향한 불자 여러분들의 눈, 발, 귀가 되었습니다.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 효도 대잔치(제1차)

오곡이 무루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회갑, 고희를 맞이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피로연을 열어드리며 아울러 관광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1994년 11월 22일~11월 26일
▲ 회 비 : 1인당 55만원
▲ 접수마감 : 1994년 11월 15일

＊ 제2차 12월초 예정

日 程 表

일자	지역	일정
제1일	서 울	김포공항 2(신)청사 2층 외환은행 집결
	방 콕	김포공항 출발,방콕 돈무앙 국제공학 도착
	파 타 야	파타야로 이동,호텔 투숙
제2일	파 타 야	조식 후 산호섬 관광 및 해변에서 휴식
		오후 회갑 피로연 행사 동참
제3일	파 타 야	농눅빌리지에서 민속쇼,코끼리쇼 관람
	방 콕	방콕으로 귀환,황금불 사원 순례
제4일	방 콕	방콕 시내관광(수상시장,새벽의 사원,왕궁,에메랄드 사원 등)
제5일	방 콕	방콕 출발
		서울 김포 국제공항 도착,해산
		＊＊＊＊＊감사합니다＊＊＊＊＊

＊ 상기일정은 출발당시의 항공스케줄/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합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금	출 발 일			
				11월	12월	'95.1	2월
INA-01	인도 8일	불교 4대성지	130만원	매일	첫째,셋째	금요일	
INA-02	인도 30일	인도전역.(배낭여행 및 자유여행 가능)	195만원		23		
INA-03	인도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럭나우-델리-방콕	200만원 (155만)	8	13	10	28 3/7
INA-04	인도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30만원 (200만)	18	2	6	10 3/3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란-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담마드-봄베이-방콕	260만원 (220만)	22	6	3	7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단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담마드-봄베이-폴룸보-아루라다루라-롤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320만원 (270만)		18 25		5 19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른후 건강칼럼 < 2 >

마 음

마음의 의학적 의미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정신과 외래를 찾아온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면 대개는 아픈데는 없다고 말한다. 아픈데가 없는데 무슨 연유로 병원을 찾았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겠지만 환자는 실은 아파서 찾아온 것이다. 환자의 표현은 아픈데라고 하면 으레이 몸을 뜻한다. 팔다리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픈것을 아프다고 표현한다.



대개 신체적인 고통을 아프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마음은 아프다는 표현보다불편하다거나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말로 대신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간을 이원론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마음이 상하면 몸도 병들어

서양의학사의 발달과정을 보면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체계가 조금씩 수정되어진 것이 그리 멀리 않은 세월이다. 몸과 마음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어 최근에 와서는 소위 정신신체의학이란 것이 발달하게 되었다. 마음이 상하면 몸이 상한다는 상관성의 증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명되고 있어 마음의 질병을 규명하는 데 한 돌파구를 만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모든 임상적인 검사를 다하고 나서 내리는 진단 가운데 이런 진단을 할 때가 있다. 고개를 끄덕이는 환자들이 많다. 스트레스가 주범이 되어 자신의 신체적인 고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수긍한다는 이야기다. "신경성입니다" 같은 이유로 붙여지는 또 다른 마음의 병이다. "화병이에요, 뭘 너무 많이 참으셔서 그렇습니다." 모두 마음과 신체적인 증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들이다.

불교에서는 감각, 지각, 의지적인 행위, 그리고 의식의 결합을 마음이라고 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신기능을 말한다. 그뜻이 의학적인 것보다 더 깊다.

주부신행담

매일 죽는 여자 ①

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무척 망설였다. 현직 부부 교사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내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나, 나와 같이 오만과 무지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황된 아상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끌고다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몇번이나 놓았던 펜을 들게 해주었다.

1992년 가을, 어느날 이었다. 남편은 갑자기 왼쪽팔과 어깨가 몹씨 아퍼서 병원엘 간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터였기에 나는 자성불부터 찾아 보라고 했다. "주인공한테 맡겨봐요."

"병원엘 가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야!"

그날부터 남편은 정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금의 차도도 없이 밤이면 잠을 자다가 뛰쳐 일어나곤 했다. "아무래도 '오십견'이 찾아온 것 같애"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게 이름이라고"

"아픈거는 아픈거 아냐!"

자기의 병은 자기가 안다고 남편은 굉소답지 않게 정형외과, 침집, 신경외과로 열심히 찾아 다녔지만 증세는 갈수록 더 심해져서 밤이면 아예 눕지도 못하게 되었다. 집에서는 수차례씩 눈이 따갑도록 독한 맛사지 약과 파스 등으로 문질하고, 부치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통증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마침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몰해, 이깟것 하나 못 고치고."

"당신 속을 당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가 다 알아요?"

난 의사 탓을 하는 그가 못마땅했다.

저렇게 독한 약을 문지르면 피부는 얼마나 괴롭고 귀찮을까?

굉소 스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의사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당신 아이요 하는 순간, 그것을 듣고 놀라면 세포도 놀라서 알을 못해요"

주인공 찾는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큰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틀림없이 병이 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배구하다 그런것 같애.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 나라고 못할 것 없지 하는 생각으로 공을 치는 순간 어깨가 삐끗했었거든." "그럼 그렇지."

젊은 시절 기계체조를 했던 남편은 나이답지 않게 몸이 날렵하고 탄력있으며 역삼각형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항상 건강에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다 성격도 빈틈없는 편에 속했다. 남의 잘못이나 헛점을 지적하고, 제자리! 칭찬! 잘서! …… . 솜이 박히게 자기의 틀을 강조하곤 했다. 자기에 딱맞는 직업은 군인이라고 하면서.

삭구나 세상사가 그의 완벽성에 만족을 줄 수는 없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외롭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았다. 그가 아파서 펄펄매는 것을 보면 딱하고 측은하면서도 빈틈이 없는 그의 마음자리가 독침이 되어 그 자신을 찔러대는 것 같이 보였다.

다시 다른 정형외과에 다니기 시작한 지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그는 어깨에 심한 화상을 입고 돌아왔다. 풍선만한 물집과 곱다만 생선구이 같이 된 어깨. 찜질이 시원하여 잠을 자고 났더니 그렇게 되었단다.

'설상가상이구나.' 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계속〉

이 연 옥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그의 마음자리가 독침이 되어 그 자신을 찔러 ····

"올바른 호흡법이 선정삼매 지름길"

박동기 · 김철 교수 국제선무학회서 발표

10월8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국제선무학회 주최 제6회 선무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박동기, 김철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불교의 호흡수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과 실제적인 수련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동기 (동국대)박사는 "공의 체득방법이 부처님의 호흡법인 아나파나사티 수트라(Anapana Sati Sutra)에서 출발한다"며 부처님이 요가의 고행법과 요기들이 계속하는 쿰바카호흡(止息)을 포기하고 장소를 봇다가야로 옮겨 6년간의 수행에서 얻어낸 획기적인 호흡법이 바로 '아나파나사티 호흡법'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은 호흡수련을 통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오장육부, 오온(五蘊) 육근(六根)에 고통을 주어서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으며 삼매나 선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즉 호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야 함을 깨닫은 것이다.

박동기씨는 "황격막 호흡을 열심히 해서 공과 공리를 체득하는 것이 대각(大覺)의 성취는 물론 행복한 생활과 각종 스포츠 목적에도 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호흡법"임을 역설했다.

한편 김철 (원광대)교수는 '아나파나사티 실수원리(實修原理)와 방법'이란 논문에서 "진아-무아-무심의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자가 수련체험을 통해서만 아나파나사티의 효력을 증득할 수 있다"며 네 단계의 선을 호흡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먼저 제1의 선(禪)은 욕계를 떠나서 정신적 물질적 장애를 받지 않는 단계다. 호흡에 있어서 주관이나 객관 곧 안과 밖의 인연을 끊고 숨을 헤아리는 통일된 정신상태는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초선(初禪)의 단계와 같다.

제2의 선은 보다 깊은 단계로 주관과 객관의 대립없는 상태로 들고 나는 숨에 광온함과 희열을 느끼게 된다. 제2선의 희열과 광온함이 지속되면 오묘한 심신의 쾌락을 간직하는 제3선의 단계에 이르며, 제3선의 오묘한 희열과 합리적 인식을 떠난 순수하고 깨끗한 세계에서 행해지는 단계가 제4선의 단계며 호흡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단계다. 이는 곧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의 상태를 말한다.

부처님의 호흡법은 요가(Yoga)의 명상이 고요함에 그친 데 반하여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는 세계로 이끌어가는 깊고 깊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김재경 기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욱 야 경 ①

욱야경은 급고독장자의 며느리 욱야의 이야기다. 그녀는 급고독장자의 아들에게 시집왔지만 친정의 위세를 믿고 교만했다. 이를 걱정한 급고독장자는 부처님을 초청하여 가르침을 부탁했다. 부처님께서는 욱야에게 일곱가지 아내의 유형을 일러주시면서 깨달음으로 이끄신다. 이제 그 첫장을 펼쳐보자. 〈편집자 주〉

Once the Exalted One was dwelling near Sāvatthī, at Jeta Grove, in Anāthapiṇḍika's Park.

And early one morning, after robing himself, the Exalted One, taking bowl and cloak went to the home of Anāthapiṇḍika, the householder, and when he was come, he sat down on the seat made ready.

어느때 부처님께서는 사밧티의 제타숲 급고독원에 계시었다. 어느날 이른 아침에 가사를 걸치신후 부처님께서는 발우를 들고 급고독장자의 집으로 가셨다. 부처님께서는 도착하시자 마련되어 있던 자리에 앉으셨다.

*exalted는 일반 고귀한, 숭고한의 뜻인데 여기서 the Exalted One은 부처님을 지칭한다.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속에 '장경'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 737 - 0695

해태 무설탕껌 『타임머신 콘서트』
국악에서 포크 그리고 랩까지!
엽서 한장, 그리고 탈출!
사는게 갑갑해? 해태 무설탕 껌을 꽉꽉 씹어봐.
그리고 엽서를 보내. 해태 무설탕껌 「타임머신 콘서트」로
잠시나마 탈출을 꿈꿔보는 거야. 좋다구? 그래, 그럼 당장!!
무설탕 껌은 설탕 껌은
해 태 껌
우편엽서 덴 CHEW
우편엽서 덴 CHEW
우편엽서 무설탕껌 X
덴티큐에 이어 탄생하는 새로운 무설탕껌! 꼭 기대해주세요!
응모기간 : '94. 10. 1–10. 20

해태 무설탕껌 「타임머신 콘서트」
국내 최초로 국제차아보호감미협회의 공식마크를 획득한 것은 물론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온 해태 무설탕껌 —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한 「타임머신 콘서트」로 시대를 초월한 음악세계에 푹 – 빠져보세요!

이렇게 참가 하세요
■ 참가방법 : 덴티큐 포장지의 마크와 한글이름 첫 글자를 함께 오려, 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해당상품을 드립니다. (2가지 상품중 원하시는 상품을 적어주세요)
■ 상품내용 :
1) 「타임머신 콘서트」 티켓 1,000명 (1인 4매)
2) 상품 : 볼록 추시계 300명
■ 보내실곳 :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31 해태껌 프로모션 담당자 앞 140-160
■ 발 표 : 94년 11월 7일 스포츠신문
사랑과 정성이 담긴 과자 — 해태제과

상품 1
「타임머신 콘서트」 프로그램
■ 행사일정 : 11월 20일 (일)
■ 장 소 : 등촌동 KBS 88체육관
■ 프로그램

구분	출 연	내 용
1부 국악 한마당	국수호 산영희	• 웅장하게 시작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소리 산영희의 판소리의 만남
2부 포크 콘서트	김광석 해바라기 양희은	• 이 가을에 다시금 확인하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추억의 포크송 무대
3부 랩 & 댄스 콘서트	서태지와 아이들	• '하여가', '발해를 꿈꾸며' 등 서태지와 아이들의 히트곡 열창

*주관 : 이랜드

상품 2
볼록 추시계

덴티큐 스피아
덴티큐 페퍼
덴티·큐 CHEWING GUM / 무설탕
치아까지 생각하는 무설탕껌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